2017 KAPCQ

www.kapcq.org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행 9:15

2017 단기선교 모집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해외선교위원회
정길표 장로

선교지역:
중국,캄보디아,카작스탄,아프리카,중남미,인도,인디언 보호구역

선교사역:
현지 목회자 훈련,주일학교 교사훈련,의료,헤어및 얼굴미용
네일아트,일대일 복음(전도폭발),컴퓨터,영어,한국어,중국어,건축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15

아가페 묵상

기도 = 말씀
응답 = 일치

#구함 #얻음 #하나님의 뜻

내 기도는 **'말씀에 일치'**하는가?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요한일서 5: 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월간 아가페 제396호 · 2017년 3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718) 358-7789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퀸즈장로교회

3월 기도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 愛加比 · Агапэ

특집 | 기도의 달

기도하는 교회: 퀸장의 기도모임 / 기도실 소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이야기

사순절 새벽기도회 30년, 그 설렘과 기대

교회설립 43주년

기념 예배 | 기념 음악회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정훈 vs 이정훈

교역자 심방이야기

20년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중국에서 왔어요."
감격과 감동의 '음식 고문'

비전! 다민족교회 특별기고 / 임찬혁 선교사
북미의 다민족 / 다문화 사역과 북미의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새가족의 첫걸음을 섬기는 새가족위원회

새가족 섬김이를 소개합니다
제 114기 새가족학교 수료예배 스케치 / 수료간증
중국어예배부 새가족학교 / 영아부 새가족학교

308호 3형제의 88한 이야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7 3

내 삶에 봄은 왔는가?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태양에는 열(heat)과 빛(light)이 있습니다.
열과 빛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열은 뜨거운 것이고, 빛은 밝은 것입니다.
뜨거운 열, 밝은 빛을 가진 태양은
온 땅 곳곳을 차별 없이 채웁니다.
열이 있는데 빛이 없다면, 빛은 있는데 열이 없다면
그 태양은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heat)과 빛(light)이 있습니다.
열은 뜨거운 사랑이시고, 빛은 밝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 열이 있는데 빛이 없다면 어두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빛은 있는데 열이 없다면 차가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사랑이나 차가운 지혜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열과 빛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 차가움이 있고
싹은 돋는데 아직 어두움이 있다면
내 삶에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커버스토리

기도의 어머니 **장정자 권사님**

구약시대에 기도하는 여 선지자 안나할머니가 계셨다면 요즘시대에 그를 능가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계신다. 그 분이 바로 장정자 권사님이시다.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으시고 정독으로 성경 100독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고 요즘도 한달에 한번씩 어김없이 정독으로 통독을 하신다.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비결을 묻는 주위 사람들에게 매일 성경을 쉬지않고 읽으라고 조언해 주신다. 올해만 94세가 되시는 권사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다. 원로목사님, 사모님과 자녀손으로 부터 시작하여 담임목사님, 가족은 물론 모든 교역자들 가족과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를 하시니 시작하시면 기본 2시간을 훌쩍 넘으신다. 퀸즈장로교회 성전을 건축 할 때에는 녹두빈대떡을 도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며 못내 아쉬워 하시는 권사님께서 3~4년 전 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으셨는데 토요 총동원 새벽예배를 못 나오시더니 2주전 부터는 주일예배도 참석하지 못하셨다. 비록 예배엔 참석하지 못 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장정자 권사님께서 2017년 이 한해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한다. [이양미 전도사]

Has the Spring come to my life?

The sun has heat and light.
Heat and light is not the same thing.Heat is hot. light is bright.
The sun has both heat and light,
which fills the whole earth without distinction.
If the sun has heat, but light, or light but heat,
The sun will become a disaster.

God has both heat and light
Heat is His love, and the light is His wisdom.
If God has heat, but no light, His love will be full of darkness.
If God has light, but no heat, His wisdom will become wisdom that is freezing cold.
Such are not of God.

We also need to have both heat and light in our life.
If the spring has come into our life, yet there is coldness, or
If the sprout has blossomed, yet there is darkness,
that means the spring has not come to our life, yet.

我生命里的春天已经到来了吗?

太阳里有热(heat)和光(light)
热和光是不一样的
热,是炽热的; 光,是亮的。
太阳的炽热和它的亮光
可以无差别地充满在各个角落里,
假如有热没有光,有光没有热
这个太阳就会是灾难

上帝拥有热(heat)和光(light)
热是炽热的爱,光是灿烂的智慧
假如上帝只有热没有光,那是一种漆黑的爱
假如上帝只有光没有热,那是一种冰凉的智慧
漆黑的爱或冰凉的智慧谁也不愿意靠近的

我们也要同时拥有热和光
春天已经来了, 却还是带着冰凉
已经开始发芽了,却还存在着黑暗
那我生命里的春天确实还没有到来。

Пришло ли Евангелие в мою жизнь?

У солнца есть тепло и свет
Тепло и свет не одинаковы
Тепло- горячее, свет- сияющий
Горячее тепло, сияющий свет это то, что есть у с
олнца
Во все края земли, без условно, солнце отдает т
епло и свет
Если бы у солнца не было бы тепла, а был свет,
было бы тепло и не было света.
То у солнца была бы катастрофа

У Бога есть тепло и свет
Тепло это горячая любовь, Свет - сияющая мудр
ость
Если бы у Бога было тепло и не было бы света, л
юбовь была бы мрачной
Если бы у Бога был бы свет и не было тепла, му
дрость была бы холодной
Мрачная любовь, холодная мудрость, это не то ч
то привлекает нас

У нас также должны быть, тепло и свет
Пришла весна, но еще пока холодно
Поднялись ростки, но еще пока темно
Тогда, Евангелие еще не пришло в мою жизнь.

아가페
제396호
2017.3

1 신앙시론 | 내 삶에 봄은 왔는가? 김성국 목사
5 신앙시 | 기도수첩 존 베일리
6 2017년 1월,2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3월 기도의 달 특집 | 기도하는 교회

8 기도모임 | 찬양위원회/해외선교위원회/어와나/영아부/유아부/유치부/초등부/중등부
12 기도응답 | Friday Night Encounter: Then and Now Hope Kwon
13 |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위한 기도 조하민
| Praying for My Talents that God Has Given Me ! Melanie Cho
14 |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축복 Xu yanlu
15 | 아빠가 아들, 하일이에게 손태은 집사
16 | 능하신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만난 동생 따지야나 랸
| 루다가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지선 집사
17 | 응답받지 못한 기도 유년부 교사 배윤영
18 우리 교회의 기도실 |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처소 정혜경 권사
19 새성전 건축 설명회 | 관계와 수용, 임팩트로 살펴본 새성전 건축설계 설명회 편집부
20 사순절을 앞두고 | 2017년 사순절 새벽기도의 설렘과 기대 이명옥 전도사
21 | 20년 개근을 넘어선 새로운 소망과 기대 송미진 집사
22 | 사순절의 추억 황은애 권사
23 제자훈련 플러스 | 제자훈련에 비전 더하기, 제자훈련 플러스 채영주 집사
24 찬양 위원회 정기모임 |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정해성 집사
25 43주년 기념 음악회 | 킹스콰이어, 블레싱콰이어 연습현장 스케치 조성순 집사
27 | 모두가 놀란 감동의 무대, 킹스와 블레싱이 나섰다 이숙규 집사
43주년 기념 예배 | 43년의 은총을 섭리로 이끄신 하나님 편집부
28 심방이야기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천위제 전도사
29 | 감격과 감동의 '음식 고문' 송요한 목사
30 | 십년 만에 다시 심방 길을 나서면서 고부영 전도사
31 | 20년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중국에서 왔어요" 계화자 전도사
32 |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함미희 전도사
재정칼럼 |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정훈 집사
33 QPEM | NEWS
34 QPEM | Garden of Hope Maggie Lee
35 QPEM | Visitation and Prayers for Dynamic Dylan Rev. Peter Kim
퀸장뉴스 | 설 퍼레이드 이숙규 집사
36 QPCM | 中文堂祷告会 / 教会消息 Cui Ruoqin 집사
37 QPEM | 春节游行 Jiang Jiqiong 집사
38 특별기고 | 북미의 다민족 / 다문화사역과 북미의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임찬혁 선교사
41 Major Trends, Models, and Issues of Multi-Ethnic / Multi-Cultural Ministries and Church Movements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ism in the USA Chandler H. Im, Ph.D.
45 전산부 | 308호 3형제의 88한 이야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임승룡 집사
46 소유영 전도사의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 이정훈 vs 이정훈 소유영 전도사
48 교육부 | 다민족 예배와 차세대 교육이 함께, 중국어로 섬기는 주일학교 일곱 교사 정민영 집사
49 새가족위원회 | 주님의 사랑이 모든 새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남형욱 집사
50 | 새가족 위원회의 역할과 2017년 계획 / 새가족 절차 안내 소철화 권사, 정주영 집사
51 | 제 114기 새가족 수료예배 / 수료자 간증 박종범 성도
52 | 나에게 새가족부란... 새가족부
53 새가족부 | 다민족 새가족 학교 남위홍 자매
54 | 영, 유아부 새가족 성경공부 김미권 권사
세무봉사 | 믿고 다시 찾는 퀸장 세무봉사팀, 205호실로 오세요 소유영 전도사

- 신앙시 -

" 존 베일리의 기도수첩 "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인류의 끊임없는 간청에 대한 참신하고 유익한 대답...

나의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오늘의 첫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첫 감정은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첫 마디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의 첫 동작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선과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와,
주께서 신비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하시기에 주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아침의 기도로
나의 오늘의 경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잊어버리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소서
이 고요한 순간으로부터 흐르는 빛과 기쁨과 능력이
오늘의 시간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에는 정조가 있게 하시고
나의 말에는 절제와 진실이 있게 하소서
나의 일에는 충성과 근면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의 평가에 겸손이 있게 하소서
남을 존경과 관대로써 대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거룩한 기억을 충실히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의 어린아이인 나로 하여금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과거의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나의 조상들의 피난성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시시각각의 모든 환경에서도
피난성이 되어 주소서

모든 암흑과 의혹의 길에서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심령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 앞에서
방패가 되어 주소서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ohn Baillie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베일리(John Baillie, 1886-1960)는 에든버러 대학과 유니온 신학교, 오번 신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직업적으로는 조직신학 교수였으나 하나님을 단순히 사색적으로만 생각하는 신학자가 아니었다. 학문적인 노력 가운데 늘 경건생활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신앙과 이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경건의 사람이었다.

저서로는 『God Was in Christ』, 『A Diary of Readings, A Rea-soned Faith』 등이 있는데, 리처드 포스터, 마르바 던 등 수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책에서 존 베일리의 글을 인용하기를 즐겨했다.

이 책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선집으로,
전통적인 묵상의 고전이다.
이 책은 공예배 때 전례문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기도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담긴 기도의 모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구하는 질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 나를 아는 지식과 세계를 아는 지식도 더불어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훨씬 더 깊고도 부요한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준다.

이 책에 수록된 기도문들은 온 세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찬양하게 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깨달으며 잠잠히 눈을 감게 한다. 아침마다, 또 밤마다 한 편씩 이 기도문들을 읽고 기도의 문을 연다면 분명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신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사회적, 개인적인 반응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웃과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이뤄지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행동이 수반 되어야 한다. 이 기도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사적인 열망들을 털어 놓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한 하늘 백성의 진실한 꿈인 것을 고백한다.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날마다 사랑의 간구를 드린다.

우리 내면의 기쁨과 슬픔을 정직하게 터뜨리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존 베일리의 기도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고 영적 동행의 즐거운 소리를 발하게 한다.

이 기도문들을 따라 기도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끽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에서 벗어난 세계를 향한 슬픔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새 희망을 품게 된다.

2017년 1월 22일	사도행전 11:19-30

그대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다민족 몇 사람이 세운 다민족 교회로(행 11:19-21a) 최초의 예루살렘교회를 제치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처음 갖게 되었다(행 11:26b).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1.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 (행 11:21)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삶을 돌이키는 데 있다. 로마의 유대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심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성공과 돈을 포기하지 못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킴을 거부하였다(행 24:24-26).

예수님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의 모든 삶이 예수에 대한 열정과 감격으로 세상 사람들에겐 미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나처럼 되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행 26:23-25, 26:29b).

2.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행 11:26)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쳤고 큰 무리가 배웠다(행 11:22-23).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이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울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벧전 4:16).

3. 작정하고 실행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실행했다(행 11:27-30).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작정하면 반드시 실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작정했을 뿐 실행치 않아 큰 불행을 당하게 되었고(수 24:24)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작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사시대라는 어려움이 찾아 왔다(삿 2:2b).

그리스도인은 말로는 "예"하고 행동은 "아니라"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었다(고후 1:17-19). 세상의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2017년 2월 5일	에베소서 1:1-2

나는 어디에 사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엡 1:1) 이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마 20:15a). 그리하여 자기가 사는 곳이 육체가 있는 감옥(엡 3:1, 6:20a)과 그리스도의 안(엡 4:1a)임을 밝혀 편지의 수신자에게도 그들이 사는 곳이 두 곳임을 알려준다

1. 에베소: 육적으로 사는 장소

에베소는 큰 상업도시이며, 우상숭배와(행 19:35) 마귀의 간계가 있는 곳(엡 4:27a, 6:11)으로 대적하는 자가 많은 곳(고전 16:8-9)이었으나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확실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행 21:10-14).

바울은 지상낙원 같은 곳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결박을 넘어 죽을 것도 각오하는 강력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보냄 받은 땅에서 살아가야겠다.

1) 마귀의 간계를 내 힘으로 맞서지 않고 믿음으로 맞선다.
2) 어떤 어려움이 많아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산다.

2. 그리스도 예수 안: 영적으로 사는 장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엡 2:5-6).

몸은 험한 세상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 존재임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수준을 달리하며 특별히 하늘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엡 1:2).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모든 사역 앞에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는

1) 하늘에 앉아 있기에 하늘의 관점으로 산다.
2) 하늘에서 임한 신비한 아름다움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仁爱·Агапэ

2017년 2월 12일	에베소서 1:3-14

내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엡 1:3).

무엇이 신령한 복인가?

1. 성부의 선택

내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엡 1:4a).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으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또 자녀의 신분이 되어 당당하고 바르게,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기 위함이다(엡 1:4-5).

이 놀라운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기쁨 가운데 예정 된 것이다(엡 1:5a, 1:9b, 1:11).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온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셨다. 나는 놀라운 존재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담겨진 존재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나를 선택하시는 데 있었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신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가 기도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삶이다.

2. 성자의 구속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받은 것이다(엡 1:7).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피(마 26:28)를 흘려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씻어졌고 내게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고, 마귀는 도망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구속의 은총을 베푼 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다(엡 1:8). 그리하여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지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보는 눈
총명: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깊이 보는 눈

지혜와 총명은 늘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고, 가장 적합한 말을 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윗 시대에 아비가일의 총명은 다윗의 부탁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고 신속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였고(삼상 25:18-19a) 또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말했다(삼상 25:28-29).

3. 성령의 인침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이다(엡 1:13-14a).

인침은
1) 내가 아끼는 것
2) 내가 보증하는 진짜
3)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셨다(요 6:27).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인치셨다(마 3:16-17). 우리는 성령으로 인을 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복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 많은 약속과 보증이 담겨 있다.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에 대한 말씀에 연이어 6, 12, 14절에 중요한 결론의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자.

기사의 동영상을 보시고 싶으세요?

큐알 코드(QR Code)를 스캔(Scan)하세요. ^^

큐알 코드 리더(QR Code Reader) 설치

안드로이드 폰(Android Phone)

Play Store → 검색 QR Code Reader 를 입력창에.. → 무료 앱 설치

아이 폰(i-Phone)

App Store → 검색 QR Code Reader 를 입력창에.. → 무료 앱 설치

QR Code 앱(App)을 열어 아가페에 있는 QR Code를 스캔(Scan)한 후 표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누르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기나 컴퓨터로 보실 때에는 QR Code를 누르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

안녕하세요	Anyonghaseyo	
Hi	Hai	하이
您好	nínhǎo	닝하오
Здравствуйте	zdrastvuyte	즈드라스뚜부이떼

특집

“ 기도하는 교회 ”

준비된 예배와 찬양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위원회

심인보 집사

매주 토요일 총동원 새벽기도를 마친 직후 2층 유치부 예배실이 분주해진다. 때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찬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정각 7시에 시작하는 찬양위원회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다. 김수산 장로가 찬양위원회를 섬기면서 정기 기도회로 시작된 찬양위원회의 기도회는 2년째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준비된 예배’를 위해 김수산 장로를 비롯한 모든 찬양위원들이 합심하여 담임목사님과 찬양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다.

찬양위원회 기도회의 주된 기도제목은...

1. 주일예배와 담임목사님의 주일 1,2,3,4부 말씀선포를 위해서
2. 각 찬양대 네 분의 지휘자와 7분의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 부장, 총무들의 헌신을 위해서
3. 2부 가브리엘과 4부 마하나임, 수요예배 벧엘 경배와 찬양팀의 사역과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헌신을 위해서
4. 3부 관현악대의 연주와 대원들 그리고 단장과 총무의 헌신을 위해서
5. 글로리아싱어스, 그레이스합창단, 블레싱콰이어 그리고 킹스콰이어의 사역과 행사 및 지휘자, 반주자, 단장, 총무들의 헌신을 위해서

또한 최근에는 부활절 칸타타 “기적” 공연과 찬양위원회에 속한 환우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담임목사님의 사역을 잘 섬기기 위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찬양위원회는 올해에도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퀸즈장로교회 찬양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양위원회에서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없이 찾아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선교지를 향한 기도...

해외선교 위원회

정민영 집사

2월 24일 금요일 밤, 교회 4층 유년부실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단기선교를 다녀온 대원들과 해외선교위원회 임원들이였습니다.

2016년 2월 13일,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수개월간의 단기선교 훈련 과정을 마치고 각 나라별로 선교를 다녀온 대원들은 모든 선교팀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9월 25일 단기선교 보고예배를 드리며 2016년 단기선교를 마무리짓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선교 보고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이 땅 끝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를 나눈 대원들과 해외선교위원회는 지속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각 선교지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선교지를 향한 기도모임이 2016년 9월 30일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밤에도, 땀과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은 대원들이 모여 찬양으로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송요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선교자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나 자신이 온전히 복음으로 덧입혀 졌을 때에 선교할 수 있음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을 다시 일깨움 받았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선교지를 향한 중보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대원들은 준비된 46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의 리스트와 기도제목 표를 가지고 세밀하게 기도제목을 살피며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합심기도를 하였습니다.

힘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소리와 뜨거운 눈물이 척박한 땅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되고 영적 지지대가 될 것을 믿으며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는 양분을 얻어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적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대원들의 기도 소리가 유년부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에 긴 하루의 일정을 마쳤지만 복음으로 가득찬 대원들의 모습을 통해 땅 끝 선교지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기도 응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Believing the Power of Prayer

AWANA (어와나)

이승근 청년

Awana is our children’s ministry focused on Scripture and the memorization of it. Yet, we know that it is only with the combination of prayer that the Word of God truly becomes a part of us. Keeping this in mind, prayer has been an important focus of our ministry. Here are the ways we have been emphasizing prayer:

* For four weeks in January, our large group team taught on prayer: the importance of prayer and how to pray; as well as spent those weeks praying with and for our children.

* Once a month, our Awana teachers come together to plan and pray for the ministry.

* Every night at 10 PM, our Awana teachers pray for the ministry together.

Here is a short blurb from one of our Awana teachers, David Lee, on prayer at Awana:

We should always uplift our children. To show them it is not impossi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kingdom of God even at their age. And that before any ministry or any work, they should grow their hearts to pray. Before Jesus set out on his ministry, he prayed 40 days and 40 nights. Our main concern is that our children don't know how to pray. It is also our fault for not teaching them properly. So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we prayed. From prayers of forgive-ness to vulnerable topics such as the teachers' weak-nesses. Our desire is that they would pray as if they have no doubt in God, for at times their age is an advantage. They won’t calculate their thoughts, and because God looks at the motives of our hearts and our faith, their prayers can bring tremendous power. Yet as of now, they haven't been awaken to this gift. A gift and a weapon many Christians have not utilized. One of our goals is to elevate this gene-ration's understanding of the power of prayer. As we do so, please pray with us for Awana. This generation is needed for the future times and it can be grown by knowing the power of prayer.

As we teach our children how to pray,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times when they will stumble. Just as Jesus intercedes for us, we too must intercede for our children. The prayers we have been praying as a ministry is as follows, and we ask that you pray with us:

• Children: That God would grow our children in their knowledge of the Bible through Awana, and that He would take this knowledge and produce faith in our children.

• Family: That God would raise up Christ-centered families, centered on God’s Word.

• Future: That God would lay a foundation in our children so that they would be raised as Christian leaders, confident in God’s promises of Scripture, able to lead the church in a society bombarded with non-biblical worldviews.

When working with children, the prayer requests we lift up look further into the future. And so, with patience and expectation, we await to see how God will answer our prayers. We see our children growing through our time together, but the real excitement is how God is using these moments to prepare our children to ultimately lead the church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Please pray with us.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가들도 함께 드리는 기도

영아부

정혜정 권사

주여! 주여! 주여!

토요 새벽예배 후 자모실에서 영아부 교사와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가들도 함께 온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소리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 날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디, 한마디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목사님의 강건하심, 사역과 비전을 위해, 교회 학교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 꿈과 비전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 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한번 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과 영아부의 각 가정,각 반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우리 모두가 뜨겁게 달아 오른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소리 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축복받는 기도의 통로가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기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도 하는 외침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새로운 확신과 기도의 응답 해주시는 큰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기도의 자리에 교사도 부모도 우리 아가들도 함께 하여 자모실이 가득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세대를 지나 또 다음 세대를 향해 이어지는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세상을 여는 능력의 소리가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기도 열매

유아부

차동미 권사

"네 입을 크게 열라." 하셨으니 모든일에 큰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리라는 강지영 전도사님과 함께 2017년 유아부 사역을 시작 하였습니다. 유아부에서는 오랫동안 토요 새벽예배 후 반별 기도회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이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10시에 중보기도의 시간을 시작 하였습니다.

기도 시작 1분전에 카톡이 오면 아침에 또는 저녁으로 모든 교사들은 중보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결석생과 새로온 친구들 그리고 장기결석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 중보기도의 시간은 날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십만번 기도 등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새벽 예배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게을러졌던 저의 새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말씀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떠난 가정들이 돌아와 유아부 빈자리가 차고 넘칠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많아짐에 따라 맡겨지는 사명도 많아져 직장일이 끝나면 매일 저녁에 교회에 가야하는 감사한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개인적인 계획은 작년 여전도회에서 오목사님을 통해서 도전받은 이모작의 제 삶을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을 해 보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악기도 배우고, 좋아하는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 성악도 배워보고 등.. 주님이 열매맺게 해 주실 큰 그릇에 수 많은 계획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장로 피택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시작하여 주님께서 주신 여러가지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 주일에도 평일에도 두 군데의 일 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정말 열심을 다해 기쁨으로 뛰고 있습니다. 제 2의 이모작의 제 삶을 멋지게 일궈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신 에스겔 47:1-5 말씀.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성령의 물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그리고 헤엄치는 차고 넘치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누리며 날마다 조금씩 하늘 나라를 향하여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유아부 어린 친구들을 그 가정들을 또한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중보합니다.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유치부

이소영 전도사

기도란 하나님께 기대어(의지하여)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 우리 유치부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고개를 숙여 내일에 있을 주일예배를 위해 간절하게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어린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명이기에 사명감으로 이때의 기도시간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다음날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오던 장결 아이가 나오고 감기걸려 아팠던 아이가 건강히 나오고 예배시간에 집중 못하던 아이들이 말씀시간에 조용히 경청하며,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과 함께 기도의 모습으로 더욱 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인내하며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우리 유치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어 기대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초등부

박상용 집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이어나가게 해줘야 하는가? 참 많은 질문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거라고 믿고 있다.

많은것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는가?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넘겨주고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목표와 소망 너무나 좋다. 하지만 직접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표와 소망은 그저 목표와 소망에서 끝날것이다.

초등부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는것에 열심을 내어본다. 특히 이번 겨울수련회를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다. 토요일 아침 그리고 주일 12시 15분 예배를 마친 후에 1시간 30분의 기도시간이 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해야 한다. 하고 싶지 않아도 명령으로 받아 실행해야 한다. 이것에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 일에 함께 힘써 노력하자. 초등부는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1.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2. 부서의 목자 위해서
3. 모든 교사들이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위해서
   -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아이들을 섬길수 있도록
4.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 부모님들과 가정에 복음의 기쁨과 말씀이 충만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가정되기 위해서
5. 아이들과의 관계와 말씀 선포를 위해서.
   - 깊은 좋은 사랑을 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위해서
   -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다음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과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 기도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교육부와 교회에 있길 기도한다.

Let us Be Still

중등부

차평화 전도사

C.S Lewis writes

"Relying on God has to begin all over again every day as if nothing had yet been done."

We can measure our reliance on God by measuring our reliance on prayer. One can very easily read the Scriptures, serve the church, and even share the Gospel by relying only on him/herself, and they can even do tha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However, prayer easily weeds out those who rely on God and those who rely on themselves. For prayer is not so much doing as it is being. What I mean by this is that prayer requires us to be still and not to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It is a place, where God calls us to wait on Him. And so, it is those who are praying, not just in the pews, but home alone in their closets, who are living truly as Christians relying on God. And so the question that beckons here is: are we Christians, who in reliance on God, are doing things or are we simply "doing" the Christian things? The answer to this will be found in how deep we find ourselves in prayer.

The New Year is a mark for a fresh start and a new beginning. And this year thus far has been that in some ways, but also not that in other ways. At our Junior High ministry, we are excited for what the Lord is doing and what He will continue to do, but are also struggling and fighting in many ways. This is the age group, where parents, teachers, and pastors can lose communication with the children, as they hit puberty, and as they are bombarded by society with various world views. It is a time, where for a parent, everything can seem useless. And yet in this time, as the struggle feels overwhelming, the door to prayer appears bigger than ever. Our Junior High ministry includes not just the children, but also the teachers, and even further the parents. As one ministry we rely on God together, and with that we pray together. I believe this is a season, where God is calling us to send up a lot of prayers. Whether they are being answered right away is something we will simply have to wait on. We want to share with you in what ways we have been praying and what we have been praying about, and ask that you join us in prayer.

Here is how we have been actively seeking prayer together.

1) On the first Sunday of every month, we have our teachers prayer meeting (5:30 PM)

2) On the fourth Friday of every month, we have a joint teachers-parents prayer meeting (7:30 PM)

3) Every Sunday, two children (one for each service) lead the 대표기도. We do this to encourage our children to pray in public and to learn how to prepare a prayer, as an outline is given.

4) Before our worship services, we have a teachers prayer meeting (Sunday 10 AM | 11:45 AM)

5) As an optional teachers study for those needing help in prayer, we are studying Tim Keller's book on Prayer together

And in these moments, our prayer requests are as follows:

1) That God would open up the hearts of our children to receive His word and live in faith.

2) That God would bring unity in our ministry,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junior high staff and 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to other children.

3) That God would encourage our parents, give them wisdom and peace as they struggle to raise these youth.

4) That God would send more servants to the Junior High Ministry to walk alongside these youth.

5) * (more immediate) That God would show His love to our 8th graders who are hitting puberty really hard in the last few months; and that God would soften their hearts.

Friday Night Encounter: Then and Now

Hope Kwon (10th Grade)

Hello!! I am currently in 10th grade and part of the Senior High ministry. I wanted to take this time to share some of the things that our ministry has been doing.

Our ministry gathers together every Friday night for a meet-up we call, Encounter. These Friday nights used to consist of fellowship, and bible study, but recently we've shifted to nights of worship and prayer. If I were to describe how Friday nights used to be, from an average high schooler's point of view, I would say that it was fun. On some occasions, we would have nights of just playing games and having fellowship. But, most of the time, we started off the night by having dinner at about 6:30 P.M. We either had Costco pizza or Chinese food, but on good nights, we had chips and dip, salad, chicken, and other goodies.

After eating, we would have some time to just relax and unwind from the week by talking and "chilling". About 8 o'clock or so, we gathered around into a circle to read a passage from the bible and our pastor, Reverend David Bae, would talk about the passage along with some issues students are struggling with or wondering about. It had sort of a lecture/seminar feel to it. We would then break into small groups and answer some questions and have a time of discussion. If we had time after, we either hung out or played games in the chapel, such as Murder in the Dark and Mafia, or we went down to the gym to play games, such as Flag tag and toilet paper dodgeball. Our nights usually ended at about 9:30 P.M.

But now, our nights are nights of prayer and worship. Honestly, from the perspective of a high schooler, the new format can feel awkward. Some students prefer the old format of Encounter. Personally, I think this might be because the format is still pretty new to us. While, we still have dinner and a time of relaxing and talking, now instead of fellowship and bible study, we gather into a circle to worship and pray, until 9:30 P.M. Lately, we have been going through the book of Psalms in order to expand our prayer vocabulary and to learn how to pray. The first week we started this book, we read a few chapters, separated to different parts of the chapel to have time to meditate and pray about the chapter that spoke to us most as an individual, gathered back together, had a time of prayer, and our night ended at around the same time.

I'm honestly enjoying and loving this new format. These were the type of nights I had longed to experience with the ministry because personally, I enjoy worshipping. Before the new format of Encounter, I would always talk about it with my friends. I would ask them "how wonderful would it be to just have nights like that?" As I watched videos of praise and worship from famous churches like Hillsong, Bethel, and others, I would always share those videos with my friends in the ministry and say, "wow, I want to experience this", "소름", etc. It was a dream to be a part of something similar to that, even if it was in the simplest of form.

I wanted to experience and see the uniting of a people, being lost in praise, all self - consciousness, insecurities, and distractions being cast aside and just lifting our voices to sing and bring glory to God. Personally, I can call it a dream that has become reality. Yes, our attendance have dropped, but people come and go. It says in the bible that when two or more people come together in God's name, His presence is with them, so we can be okay with a drop in attendance

I also did enjoy the time of fellowship and bible study we had before the change. I think it was good for welcoming new students, inviting friends to visit, and a time of just forming new bonds or planting deeper relationships. It was a blessing to see new students or freshmen who just came up to Senior High begin to find their place in the ministry and grow comfortable with others. The topics we discussed were captivating and relatable to our everyday issues, some examples being tattoos, piercings, and relationships/dating.

I don't know about others but for me personally, something was missing. Something felt empty. Sure, it's fun. Yes, it's interesting and very relatable. In fact, I learned so much from these nights and probably would have never learned if it wasn't for that format, but it wasn't satisfying. The new format of Encounter is to go back to the basics, to find the hearts of worship that we lost, to rekindle the passion and desire we once had in praise, and to be reminded of all the reasons why God is worthy of our praise. I think this was the missing piece, why services on Sunday feel dead, and why our praise empty, it was because we forgot the basics. We forgot God's glory and worthiness. We forgot the beauty and goodness of His works. After a week of stressing over school/work, going to 학원, having to deal with personal struggles, and all the other things that make up our lives, we tend to forget to praise God for the good in the everyday and fall into temptation of thinking that our lives are ours and steal the glory from God.

I've been guilty of these struggles myself. I am serving in praise team and as someone who is supposed to be guiding the congregation into worship and to lift praises to God. I confess that I have struggled with where my heart and mind was during praise. I was content and satisfied to hear "you sang very well today" after service, but I didn't even bother to think about, let alone fear, that this was all just a form of self-glorification. I should have been looking to hear "I was blessed by the worship today", and about how my singing or piano playing, gives praise to God who has gifted me with such talents. I found myself singing or trying to play the piano in excellence, not to glorify God, but to fish for the wrong sorts of compliments. Hearing that statement soon became my pride, and eventually even my focus during praise, and I soon forgot my original reason for being in praise team. I was stealing God's glory and finding the glory in myself rather than in God.

I truly think that through this new format of Encounter, God is working to humble me, and I am truly blessed to see others changing bit by bit with me. It's such a blessing to see the teachers and pastor of this ministry working, worshipping, and praying together with the students to rediscover our lost hearts of worship. Normally in other ministries, it would be the teachers and pastor leading and teaching the students. What I am most thankful for and most blessed by from Encounter is that it is not like this, that we are in the process of learning and finding what we lost together, and that we are purely dependant on God for our outcome and under His leadership.

I, Hope Kwon, hope for (pun intended) and ask you to pray that through these Friday nights, our ministry will rediscover the God who is worthy of all the praise and glory, that we'll be able to cast off all our insecurities and self-consciousness aside, and get lost in praise. That we will be reminded of God's goodness through meditating and singing the lyrics of praise songs. I also hope and ask you to pray that revival will take place in our ministry, through the finding and transforming of the hearts of every single student, teacher, and pastor, that our ministry will be able to unite as a body, like a family, and that our praises will be passionate and sincere. To close, even if the number of people in attendance has dropped for our Friday nights, I just ask you to pray that we will not be discouraged. Thank you.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위한 기도

조하민 (초등부 5학년)

어느날 학교에서 5학년 치어리더 오디션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치어리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한테 치어리더를 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할 수 없을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치어리더를 하면 학교도 일찍 가서 연습을 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 솜씨와 자신감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엄마는 제가 노래나 댄스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방에가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발 할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학교에서 오디션이 있었어요. 학교 체육관에 50명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는 긴장되기도 했고 치어리더 미스 엘선생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댄스를 할지 무척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요… 자신감있고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요. 저를 만드시고 저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조금후,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높게 뛰어보기도 하고 빨리 돌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어요. 감사하게도 실수 없이 모든것을 끝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치어리더 선생님이 제가 치어리더팀에 합격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 기뻤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도 기뻐하셨고 제가 치어리더팀에 합격한 것에 놀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하신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달란트를 찾은 것 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또 다른 달란트를 찾기 위해 노력할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Praying for My Talents that God Has Given Me !

By **Melanie Cho** (5th Grade)

One day at school, they announced a cheerleader audition for 5th graders and I was very excited to hear that. So I asked my mom if I could go for the cheerleader tryouts but she didn't think that I could do it because cheerleader team requires practice time early in the morning and show your dance moves and confidence in front of people. But I thought that probably my mom didn't believe in that I have talents to sing, dance and perform. However, I really wanted to do it so badly that I went to my room and started to pray.

"God, can I do it? Mom doesn't want me to do it… Please let me do it… "

On the day of tryouts, I was so surprised to see about 50 boys and girls gathering in the school gym. At that time, I suddenly felt very nervous and wasn't sure what I would say or do in front of Ms.L, our cheerleader teacher. So before it was my turn, I quickly prayed to God.

"Dear God,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I am nervous… please help me to be brave and confident. I really want to do this. You made me and gave me special talents... "

Soon enough it was my turn and I jumped up and down and twirled and shouted in front of the children and teachers. I was thankful that every step I moved was good and steady.

The next day, Ms. L told me that I got in the cheerleader team and I was so excited to hear that news. When I told my mom about it, she was very happy and surprised that I made it. I realized that God answered my prayers and I was so thankful.

Sometimes we don't know what we are good at, but God knows it. He gives every opportunity for us to find out our talents that He has given us. Just like I found my talents…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pray for our talents and find out w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So from now on I will continue to pray and keep searching for my other talents and use my talents to glorify His name.

긴급 중보기도 접수처를 아세요?

중보기도는 글자 그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용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가요?

본당 앞 로비 게시판 옆에는 여러분의 기도요청을 기다리는 '긴급 중보기도 접수함'이 있습니다.

祷告蒙应运的见证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축복

– 徐妍露姐妹 (Xu yanlu)

弟兄姐妹们，平安！我是中文堂的徐妍露姐妹。我跟我先生2012年初结婚。刚刚新婚不久就准备想马上要一个孩子，可是过了一年都没有动静。于是我们各自去检查身体，医生说我丈夫怀孕的机率很低。在美国的医生建议直接做人工受孕或者试管婴儿。而我们回中国看的医生，则是开中药治疗，帮助受孕率提高。可是我先生嫌中药苦，都没有认真坚持吃中药，后来也放弃了中药治疗。

2015年11月来到了我们教会，我们每天祷告恳求神赐我们一个产业。2016年1月1日跨年崇拜的时候，我领到了主任牧师给的金句：“你父亲的神必帮助你，那全能者必将天上所有的福，地里所藏的福，以及生产乳养的福，都赐给你！”（创 49:25）感谢上帝赐给我们得产业的应许，我们非常的高兴。

自从我们来了韩中长老教会，我们夫妇越来越认识神、明白真理了！同时间我在荷兰的一位发小，她也信主了！我们每天分享神的话语，欢喜快乐！她还在微信建了一个求宝宝的祷告群。我们每天下午都在微信语音里，一起敬拜、赞美、祷告神，求神赐这个群里的每一位姐妹一个产业。在和她们的祷告中，我感觉到她们每一个人都非常渴望一个宝宝。我想如果这个群里的姐妹们一个个都怀孕了，那剩下最后一个姐妹会多难过多焦急！可是如果我是最后一个的话，我不会有她们那么难过，所以我跟神说让我最后一个怀孕吧！让她们都先得到神所赐的产业。而我最想求神的就是让我和先生的灵命快速的提升！

当我的祷告改变后，先求神的国、神的义之后，我们所需的，神就添加给我们了！今年的9月份，我发现我怀孕了！我和我先生都感恩到热泪盈眶。我想起1月初拿到的金句，那时我的阿爸父就已经应许了我，而现在，祂成就了祂的应许！而且我们中文堂，还有两位姐妹都拿到神应许赐她们产业的金句，她们也都怀孕了！我们的神是多么的信实啊！

这件事不仅让我们经历上帝，也让我的父母对上帝更有信心。也开始信主，开始祷告！上帝是垂听祷告的神，我将我的生命，全然的仰望交托在神的手中。今天我们可以见证，在神凡事都能！愿神行在我们身上的奇异恩典，也行在所有祷告神的弟兄姐妹身上！也希望大家在祷告当中不断地寻求、依靠上帝！耶和华听了我的恳求，耶和华必收纳我的祷告！一切的荣耀归给主。阿门！

샬롬! 저는 중국예배부 xu,yanlu 자매입니다. 저랑 남편은 2012년 초에 결혼하고 곧바로 아기를 갖기 원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각자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선생님은 저희 남편은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의사선생님은 바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를 하라고 권하였고, 중국으로 가서 만난 의사선생님은 한약으로 치료받으면 임신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한약이 너무 쓰다고 열심히 먹지도 않았고 결국 중의치료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저희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저희는 매일 하나님께 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저는 담임목사님께서 주신 축복성구 말씀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창 49:25)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태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퀸즈장로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란에 사는 한 친구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너무 즐거웠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는 위쳇(wechat) 에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위쳇(wechat) 음성메세지로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자매들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 모든 자매가 아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그룹에 있는 자매들 한 명씩 모두 임신하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자매는 얼마나 힘들고 조급할까. 그러나 그 마지막 사람이 만일 저라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매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녀를 갖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자녀를 가져도 좋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간절히 드린 기도는 저와 남편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너무 감사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송구영신예배 때에 받은 축복성구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예배부의 두 자매 역시 받은 축복성구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이것을 계기로 저희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부모님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저는 저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저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같은 은혜를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아멘!

아빠가 아들, 하일이에게

아빠 손태은

안녕하세요 저는 손하일의 아빠 손태은 입니다. 퀸즈장로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는 아들 덕분에 영아부로 다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빠로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은, 제 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잘 기를 수 있을까 입니다. 지금은 영아부 라는 교회학교에서 이명옥 전도사님을 통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있지만, 아들이 점점 크면서 가질 수 있게 될 기도의 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로 미리 남기고 싶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6:9) 아들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드리지만 그 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단다. 그 분은 어떤 아버지시냐 하면 아빠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분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란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7:11) 아빠는 죄인 이야. 근데 이런 아빠도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 그 기도는 아들을 죄에서 구원 해 달라는 거였다. 오직 주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단다.

아빠는 기도 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하늘의 계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일이를 진짜 구원 하셨어! 어떻게 아들을 구원하셨냐 하면 우리 아들, 하일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기 까지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란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어느 날 아들의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아빠는 아들이 아빠랑 하는 대화를 즐기는 것이 아빠가 받은 복 중에서도 아주 크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일이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일이랑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시겠니? 아들은 아직 아빠가 이해를 못하는 말들로 표현을 하고 마음을 말하지만 아빠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지칠 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 이셔. 아들의 하루를, 즐거웠던 일, 잘 못한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아들이 말 할 수 있고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시길 원하셔. 사람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이랑 친밀하게 아주 가까워지는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야.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 4:2)”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것 이란다. 하나님은 아들을 태초의 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셨지.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으면 누가 못하게 한다 해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나오게 된단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 할 것인즉 (사 62:1)”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몸이 피곤을 느끼기 시작하지. 아들도 그렇게 힘차고 신나게 놀아도 언젠가는 피곤해져서 자고 자면서 코를 신나게 곤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 피곤을 모르시고 어떤 때에도 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길 아빠는 기도하고 있단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 아들도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끝없이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아들을 알리길 부탁한다. 요즘 세상은 뭔가 이상하다. 선 보단 악을 좇고 구별된 삶 보단 서로 서로의 죄를 받아 드리며 인정 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는 아주 희한한 때에 와 있는 이때에, 나의 아들은 기도를 잊지 않도록, 모든 판단은 오직 주님으로만 하며 모든 행복은 오직 구원의 기쁨 안에서 얻길 간절히 부탁한다.

아직 할 수 있는 질문들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빠는 한글이 그렇게 편치가 않단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를 흥미진진하게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다. 마지막은 우리 기도로 끝내자.

아버지여 저희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사 죽으셨지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기에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능하신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만난 동생

따지야나 랸 (Татьяна Лян)

В 2016 году вся наша семья молилась за приезд моего братишки Александра и его семьи в Америку. Семь лет мы не виделись, и конечно желание было очень сильное у всех. Были большие переживания, потому что сложно получить визу в посольстве на всю семью. Каждый раз приходя в церковь и слушая проповеди Пастора Владимира, я получала очень много ответов на свои сомнения, переживания.

А потом как-то мое сердце успокоилось и я сказала Господу, что все в твоих руках. От меня ничего не зависит. Я просила что бы Господь сопровождал семью брата на интервью, был всегда рядом! Было огромным счастьем, когда очень легко, первыми ,они без проблем получили визу! В сентябре они приехали к нам в гости. Мы провели время очень хорошо!

Мой брат приходил в нашу церковь и был реаль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как Господь быстро дал ответ на нашу молитву! Мы всей семь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сенней ярмарке. Целый день мой брат жарил шашлыки. И сейчас, далеко из Казахстана, он каждый раз передает привет всей нашей церкви!!!Наш Бог, Бог отвечающий на молитвы. Аллилуйя!!!

2016년에 우리 온 가족은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제목은 바로 저의 알레크산도 동생과 가족이 같이 미국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약 7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이 같이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 하는 단계에서 많은 걱정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나오고 송요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할 때 하나님이 꼭 친히 동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쉽게, 문제없이,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비자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2016년 9월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나오고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자회도 함께 참석하고 같이 양고기 고치를 굽고 섬겼습니다.

비록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루다가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지선 집사 (유치부 이루다 어린이 엄마)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11시 59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시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얘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인 이루다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매일매일 매 순간 고민합니다.

2012년 2월 8일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루다는 10개월간 무던히도 씩씩하고 튼튼하게 엄마 배속을 휘저으며 컸습니다. 막달에는 요녀석이 얼마나 저의 영양분을 빼앗아 갔는지, 원인을 알수 없는 치통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뽑아(?) 먹으며 자란 아이입니다.

엄마의 몸이 좋지않아 제왕절개로 태어난 루다가 가장 처음 들은 말은 'Oh! Big boy!'라는 간호사의 탄성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준 루다가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루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모든 부모가 초보 부모의 시기를 겪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랬습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 낳은 아이라 주변의 어른 도움없이 둘이서 책과 검색을 통해 육아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이 아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신대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루다가 머리와 몸 보다는 가슴이 큰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큰 사랑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던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과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어둠을 이기는 빛과 같은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루다는 지난 2월 8일에 만으로 다섯살이 됐습니다. 꽉 채워 5년을 우리곁에서 잘 커줬습니다. 0시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 부부에게 맡겨진 이 아이를 눈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끊임 없는 기도로 준비시키겠습니다.

등불과 함께 병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마태복음 25장), 주님 다시오셔서 '잘 했다. 잘 키웠다'라는 칭찬 듣도록 기도하며 키우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유년부 교사 **배윤영** (Julie)

제게는 수년째 답변 없이 되풀이되는 기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들에 관해서는 마치 못 들으신 것 처럼 절대 답이 없으십니다.

사실 단 몇가지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자니, 고3 시절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간구했던 특정 대학교 입학은 결국 재수까지 하면서도 실패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탁드렸던 친정 아버지의 구원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몇 년전에는 짧은 육아 휴직후 복직이 두려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또 최근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적처럼 치유해주십사 몇년째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고백해야 할 부끄러운 사실은, 응답 받지 못한 기도는 단 몇분 내에 이렇게 쉽게 줄줄줄 적어 내려갈 수 있었으나, 응답 받은 기도는 기억 속에서 쉽게 찾기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제 기도, 주변 분들과 가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아가페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줄 한줄 확답을 주신 기도를 적어내려가자니 단 한줄을 더하는 데도 몇시간, 심지어는 며칠이 걸리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결국 제가 원하는 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셨으며,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들 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일상 생활에서 일단 필요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목표를 갈구하느라 급급합니다.

얼마전 QPEM 제자 훈련 자료중 설교 말씀을 통해, 불치병으로 어린 아들을 잃게 되신 목사님 부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사의 고비에 이르자 부부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대로 병원에 머무르며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부부에게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가야겠다."라는 응답을 두 분에게 별도로 주십니다. 목사님 부부는 마지막날 아침, 간밤에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두분에게 각각 내리신 음성을 확신하면서 아이를 보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운 점은, 두 부부의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두분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바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두 분 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함을 인정했고, 그 분의 의사가 확고하자 두말 없이 순종하고 그 뜻에 따랐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저와는 달리, 두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 노력했고, 그 결정이 결국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더군요.

여러분은 매번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제 기도는 어릴적부터,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게 싫어요. 꼭 부탁드려요." 투성이였습니다.

사실 정말 최근까지, 저는 매 순간 제가 필요한 것만 달달 읊었을 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문의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에서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나열할 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번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바로 그 일방적인 요구자였습니다.

수십년간 그 일방적인 요구를 묵묵히 듣고 계셔야 했을 하나님을 생각하니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은 누구 탓을 해야할까요? 위의 목사님 부부가 당신들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확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특정 대학을 꼭 갈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 제가 복권에 당첨되리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리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할 말에만 바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더랬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제 간구를 하나님께서 정말 묵살하셨었는지, 아니면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는 쉽게 잊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제가 필요한 것에만 기도의 초점을 맞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해서 만약 모든 기도 제목이 제 뜻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만 했다면, 제가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대화를 시도했을 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배필로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사랑하는 남편과도, 일주일 내내 직장 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치이다 보면 별다른 대화 없이 며칠이 지나게 되고, 결국 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간단히 소통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과도 이렇게 소홀해지기 쉬운 형편에,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일 깊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투철한 목표 의식이 없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인류 구원의 역사와 같은 위대한 사명이던, 내일 당장 필요한 빵 한덩어리이던 상관 없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상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묻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문의하시는 데 인색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는 축복임에 감사하십니까?

선교 위원회 헌신예배

2월 5일 오후예배를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사회를 맡은 전성호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 민미숙 권사, 성경 봉독 임동진 집사, 봉헌 기도 조지영 집사가 각각 순서를 맡았다. 예배중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릇과 그릿(GRIT)' 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다.

선교위원회는 남,여 각 10개, 총 20개 선교회로 이루어진 위원회이다.

위원장으로 전성호 장로, 남선교회 연합회장 정길표 장로, 여선교회 연합회장 민미숙 권사가 있다.

“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처소”

정혜경 권사

긴 침묵의 겨울에서 생명의 봄으로 이어지는 3월은 기도의 달이며, 이 달 6일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기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고귀한 특권이며, 세상을 향한 강력한 무기이다.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해 와도, 태산같이 큰 문제나 환난이 닥쳐와도 온 세상의 주인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되고, 우리 마음에는 강같은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의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능력있는 기도의 용사들이며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이다. 특별히 영광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온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기가 주님 보좌에 올라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선하게 응답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마련된 기도 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지하 기도실

이곳은 지하 친교실 왼쪽 중간 쯤에 있는데 기도의 제단으로 교회의 원동력이 되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모여 친목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선교회 기도회로도 모인다. 기도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일 때 마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들어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안에서 더욱 영육이 강건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한 기도의 산실이 되었으면 한다.

1. 담임목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실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서 왼쪽 끝으로 가면 본당 찬양대석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오른쪽에 이 중보 기도실이 있는데, 담임목사님과 원로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일 1, 2, 3, 4부 예배에 능력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이름을 써놓고 기도한다. 은혜롭고 능력있는 설교자의 배후에는 예외없이 강력한 기도부대의 뜨거운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아직 이 기도에 동참해 보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며 더욱 능력있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3. 중보 기도실

본당에서 나와 이층으로 올라가면 교역자실에 가기전 왼쪽에 눈에 띄는 '중보 기도실'이라는 명패를 붙여 놓은 이 기도실은 중보 기도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곳인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실이 있는 것 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보 기도실에 들어와 무릎 꿇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고통 받는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는 복된 중보기도자들로 이 기도실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교회는 40대의 장년으로서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을 열방에 나누어 주며 그 기도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되 기도의 영역을 더욱 넓혀서 다민족과 이교도들, 불신자들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관계와 수용, 임팩트로 살펴본 새성전 건축설계 설명회

2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2번째 과정인 설계 초안 설명회가 있었다. 김수산 장로의 사회,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설명회가 시작되었다. 설계사 측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의 조건을 가지고 세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한가지 안을 추천하였고, 며칠 후 당회에서 1번 안으로 결정하였다.

설명회에서 담임목사님은 “짧은 시간에 지금 단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세가지 옵션을 가지고 건축위원, 당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합니다. 건축적인 기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건축디자인이란 것이 예술이고 흥미롭고, 공간이 창출되면서 펼쳐질 놀라운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낼 일들을 가슴 벅차게 기대하게 됩니다.”라는 소감과 함께 또한 이 **건축의 의미**를 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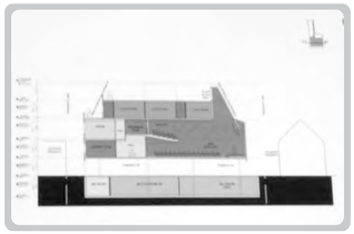
첫번째 의미는 관계이다.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서, 한울타리에서 EM과 KM의 관계가 새롭게 결정될 것입니다. KM이 43년이 되었고, EM이 23년이 되었다. 실제로 1세대 KM의 아들 딸들이 EM에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좀더 챙겨봐야하고 신경써야 할 관계였다.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한어회중과 영어회중의 관계는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가 될 것이다.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로 QPEM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항상 우리가 챙겨주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 단계를 뛰어 넘어 확실하게 독립적인 자기 살림을 차리는 단계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같이 가야한다. 이제는 독립적인 성장과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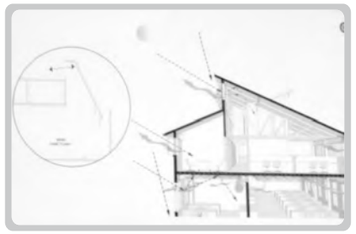
두번째 의미는 수용이다. 이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는 것이다. 수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좀 더 많이 수용할까?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릴까? 수용성에 대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큐펨이 이 성전으로 가게 되었지만 수용성을 버리면 안된다. 우리는 영어 예배뿐만이 아니다. 이 퀸즈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많이 서럽다. 갈 길 몰라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수용성 가진 건물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임팩트이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센터 처치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복음의 임팩트, 하나님 나라의 임팩트, 사역의 임팩트, 건물을 통한 임팩트,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목표를 가질 때에, 책임감이 주어진다. 수용성, 임팩트, 우리가 이것을 함께 대안을 주고 펼치면 그들은 독립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어 주어야 한다. 이 과정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복음 비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명이 있다. 수용, 수평 임팩트. 오늘 이 모든 설계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큐펨을 한없이 응원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새성전 건축에 담긴 ‘관계’와 ‘수용’과 ‘임팩트’를 통해 새성전 건축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설명회가 되었다.





“ 2017년 사순절 새벽기도의 설렘과 기대 ”

**하늘 별미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과 은혜와 풍성한 기도 열매가 있을 사순절을 설렘으로 기다린다.**

이명옥 전도사

사순절이라는 다소 익숙치 않은 단어로 매일 새벽을 사십일간 열기 시작한 것은 벌써 30년전이다. 이전에는 부활절 전 사십일에 별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사순절이란 단어가 그리 익숙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절 사십일 전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게 지내며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이 다람쥐 체바퀴처럼 도는 현실에서 뭔가 다르게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시 일으키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30년째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가 있음을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사역의 기도제목을 통해 응답되는 것을 보았기에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설렘이 항상 있다.

나태하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보내기 쉬운 신앙의 걸음에 바짝 신발끈을 조여 매고 다시 앞을 향해 바로 달리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특별한 말씀의 꼴을 먹는 영적 별미의 시간이어서 이번 사순절에는 무슨 말씀으로 은혜 주실까 많은 설렘이 찾아온다. 또 한가지는 매일 새벽 나눠주는 말씀 암송 요절이다. 예배실을 들어설 때마다 준비된 그날의 본문 중에서 요절을 뽑아 나눠주는데 이것을 외워 사순절이 끝난 후 암송 대회를 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새기고 사순절의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 어린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암송의 귀재들이 나와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난 해에는 다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비젼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말씀을 암송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높아지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새벽 기도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듯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눈물과 감사와 감격, 응답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어서 기도에 아직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에 꼭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뚜껑을 기도로 열어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위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한다. 먼저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 선포와 기도이다. 경찬팀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는 찬양, 각 교구마다 만들어진 출석표에 매일 새벽 일찍 나와 준비하고 출석을 점검하

고 살피시는 전도사님들의 수고, 보통 새벽기도보다 사순절 기간에는 15분 일찍 시작하는데 이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와 각 성도들을 위해 운전대를 잡고 수고를 마다 않는 운전 봉사자들, 야광봉을 들고 주차장을 책임지는 분, 매일 맛있게 공궤되는 베이글을 셋팅하고 준비하는 손길, 타민족 예배자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통역실 등등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 새벽기도를 위해 수고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런 귀한 섬김의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한 이런 섬김와 봉사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

갓난 아기들을 안고 업고 자모실로 속속 들어와 아가들이 기도 속에 자라도록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젊은 부모님들과 아직 눈이 떨어지지 않지만 엄마, 아빠 손에 끌려 예배실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소망의 걸음이 함께 하는 정말 아름다운 새벽이다. 새벽기도 후에는 많은 분들의 도네이션을 통해 준비되는 거부할 수 없는 맛의 별미 베이글이 항상 기다린다.

사순절의 절정은 고난의 밤 예배로 이어진다. 나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모든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러나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사흘 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은 새벽촛불 예배로 시작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로 마무리 된다. 사순절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로 승리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나가는 기쁨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영육이 부요해 지는 이 사순절 위해 어떻게 준비할까? 먼저는 기도로 그리고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준비해야겠다.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쏟아질 하나님의 은혜, 이 시대를 책임질 믿음의 용사들이 키워질 놀라운 이 시간에 모두가 은혜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은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번 사순절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이 은혜의 길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또한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자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나 대신 당신이 기도하고 와, 애들이 너무 피곤해 하는데 그냥 자게 둡시다, 알람이 꺼졌어, 나 내일 시험이야, 출장이 잡혔어.. 하지만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믿음으로 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하늘 별미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과 은혜와 풍성한 기도 열매가 있을 사순절을 설렘으로 기다린다. 이번에 주실 은혜와 응답을 손꼽아 헤아리며 가슴 벅찬 기대로 ...

사순절 새벽기도회 20년 개근을 넘어선
새로운 소망과 기대

송미진 집사 (마리아선교회)

할렐루야!저는 마리아 선교회 송미진 집사입니다. 아가페 글 부탁이라고 하시며보내준 메세지에는”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앞두고”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며 너무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며 간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기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알기에 간증문을 거절하려 했을때 지금이 아닌 옛날 사순절 새벽 기도회의 많은 식구들이 참석할 수 있었던 노하우와 오랜 기간동안 매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던 비결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속으로 지나가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의 필림들 속에는 정말 저도 잊고 있었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노력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이 약했던 남편[송동율장로]이 매주일 광고가 나오는데 지원하는 운전자가 없는것 같다며”새벽에 운전이나 한번해 볼까?”하는 혼잣말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20년전부터 저희 가족 모두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시작했던 예배가 큰딸[사라19살]이 태어나면서 부터는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 하면서 지훈[16살]지은[15살]막내 지수[11살]까지 매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참석 하게 하시고 8식구 가족 개근상을 받게 하시며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명옥 전도사님께서 자모실에 붙이시는 스티커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아이들도 스티커를 벽에 붙이며 자모실에서 기도로 자랐습니다. 노하우나 비결은 없지만 매년 기다리는 특별한 일년 행사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사순절 새벽 예배에 나오던 아이들은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아이들은 점점 커서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타협하고 이해하다 보니 가족 개근은 멀어져갔고 개인 개근까지도 모두 세상의 현실속에 타협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과거속 자랑꺼리의 믿음과 그리움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때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가정을 깨우시고 부르시는 것을 이번 간증문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이젠 8식구 개근은 할수 없게 됐지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저를 아시기에 다시 한번 기도로 새로와지길 바라시며 제게 주신 사순절 새벽 기도회의 소명을 깨닫게 하신줄 믿고,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란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순절은 훈련과 교육의 준비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처럼 기쁨과 감사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묵상과 침묵을 통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퀸즈장로교회의 2017년도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는 3월 6일(월)부터 4월 16일(주)까지 이어집니다.

“ 사순절의 추억 ”

황은애 권사

우리교회의 지난 30년 동안의 사순절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잠자기를 줄이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일 학교 어린이들도 눈비비고 나아갑니다. 우리 영아부 아가들도 엄마 아빠의 품에서 잠이 덜 깬 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은 어느새 가득가득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모실에서 잠든 채로 기도를 배웁니다.

해마다 말씀의 주제가 한공과를 배우는 것처럼 신약의(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계시록 등) 한 과를 첫날부터 사십일간 나누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마치게 되며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므로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자모실에 가득차 이명옥전도사님과 영아부 부장이 출석부에 스티커를 붙여가며 어린아이들을 챙기고 40일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아이들에겐 풍성한 선물도 주어지며 잠이 덜 깬 채 나온 아이들이 설교가 끝날 때는 깨어서 어른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짖을 때 아이들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순절을 경험하며 자랐던 영아, 유아, 유치부어린이들이 지금은 30살이 넘은 청년으로, 중년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어 우리교회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젓한 사역자들이 되어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있습니다.(박성권전도사, 김재형목사) 그들이 멋진 청년으로 안수집사로 자란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 사순절의 30번째의 역사가 우리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했고 우리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시간이 끝나면 학교와 일터로 가기 전에 지하 친교실에서 베이글과 커피 타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 성도들의 이웃사랑도 체험케 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의 교제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부터는 삼겹줄 기도짝을 만들어 “한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 말씀대로 세 사람이 삽겹줄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므로 서로가 주 안에서 더욱 친근해 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체험케 합니다.

나는 이번 사순절에 구역식구로서 이번 새 신자 공부를 졸업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삼겹줄 기도짝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구역식구로서의 사랑을 나누며 기도응답의 체험을 나누려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므로 기도의 응답받아 2017년 한해도 형통한 한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목사님의 사역을 섬기는 글로리아싱어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한인동산장로교회 헌신예배 말씀 선포에 동행

소철화 권사

2월 15일 김성국목사님은 용커스에 있는 한인동산장로교회 예배 위원회 헌신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되었다. 글로리아싱어즈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찬양을 하였다.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저녁을 너무도 맛있게 먹은 후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교회벤에 몸을 싣고 용커스로 향했다.

글로리아단원들은 예전의 찬양다니던 시절을 회상하시며 참으로 오랫만에 찬양하러 가게되어 모든분들의 마음이 은혜와 추억으로 아련해짐을 느꼈다.

서로 챙겨주며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차 안에서도 느껴졌다. 한 곳을 향해 같이 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안에서 쓰임받는 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생각했던 시간대로 잘 도착할 수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지만 눈에 들어온건 캄캄한 언덕위에 흐리게 보이는 교회 건물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올라가는길이 몹시도 굽어진 언덕길이었다. 짧았지만 한국의 강원도 대관령 언덕길이 문득 생각났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니 교회와 파킹장이 보였다.

우리는 모두가 연습실로 이동하여 다같이 리허설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동산한인장로교회의 연합찬양대가 말씀전 찬양을 하였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한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목사님은 창세기 22:1~14 말씀으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첫째로, 순종하는자.

예배는 즉 순종이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는자가 예배자이다. 예배전, 예배중, 예배후에도 순종해야한다.

둘째는 예배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쉬워진다.

셋째는 예배는 듣고 보는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는, 예배가운데 답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일 하신다. 예배안에서 예수님을 봐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글로리아싱어즈는 특송순서로 “부르신곳에서” “오직예수” 2곡을 찬양했다. 새로운 단원들이 같이 참여해 모든 글로리아싱어즈가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 제자훈련에 비전 더하기, 제자훈련 플러스 ”

채영주 집사

역대 제자훈련 과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95명이 접수한 ‘제자훈련 플러스’가 2월 16일(목) 오후 8시에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14주간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첫날 순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개강예배를 드린 후, 교재 ‘센터처치’의 프롤로그 ‘신학적 비전을 나누며’에 대한 담임목사님의 강의로 이어졌다.

담임목사님의 지도에 따라 교재의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훈련생들이 순차적으로 읽어가고, 이를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첫날의 분위기는 진지했다.

또 강의후 진행된 훈련생들간의 주제토론도 이전의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에서는 볼 수 없던 자연스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제자 훈련 플러스는

- 제자훈련 수료생들에게 제자훈련 Manual을 Up-grade 시키기
- 센터처치와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이해하기
- 우리 교회의 신학적 비젼을 찾기
- 제자훈련 Manual과 우리교회의 신학적 비전을 삶과 사역과 선교에 적용하기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용되는 교재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 김성국 목사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쓴 논문 ‘Transformational Leadership’, 그리고 Navpress Pub Group 출판사의 ‘Real-Life Discipleship Training Manual’ 등 3가지가 있다.

제자훈련 플러스 일정과 과정

일자	과 정	
2/16	개강예배	프롤로그(센터처치 16-43 페이지)
2/23	A Heart to Make Disciples	Part1 복음이 본질이다
3/2	What is a Disciple?	Part2 복음 중심적 부흥을 준비하라
3/9	How Disciples Grow	Part3 복음이 현실에 다가서게 하라
3/16	Three Keys to Making Disciples	Part4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
3/23	How to be an Intentional Leader	Part5 교회, 도시 문화를 이끌라
3/30	A Closer Look at a Relational Environment	Part6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4/6	A Closer Look at The Reproducible Process	Part7 모든 사역을 통합하라
4/13	Share: Being Intentional with The Spiritually Dead and Spiritual Infants	Part8 더욱 역동적으로 사역하라
4/20	Connect: Helping Spiritual Children Gr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1
4/27	Minister: Helping Young Adults Help Ot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2
5/4	Disciple: Being Intentional with Spiritual Parent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
5/11	One Necessary Tool: A Small-group Curriculu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4
5/18	폐강예배	우리 교회의 신학적 비전과 적용

“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

수고와 헌신이 기쁨의 소리로 퍼지는 찬양위원회 정기모임

정해성 집사

찬양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찬양위원들이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친교실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선교위원회의 헌신예배 후 오후 5시 30분쯤 모인 이날 모임은 주방장 이정훈 집사를 비롯 이경애 권사(이광윤), 정주영 집사(정해성), 심경선 집사(심인보), 정경미 집사(정기영), 신운영 집사(신기만) 등 찬양위원회를 섬기는 권사, 집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만찬으로 시작되었다. 총 40명의 찬양위원 중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LA갈비와 오징어 볶음, 전, 샐러드 등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화목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었다.

찬양위원회 위원장 김수산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위원회의 정기모임은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위원장 이광윤 집사의 기도,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말씀선포, 간담회,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느헤미야 12: 27~31,43의 말씀을 전한 담임목사님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찬양의 즐거움’을 권면하셨다. 지난 12월 다섯 교회가 연합으로 드린 ‘연합찬양제’ 당시 타 교회로 부터 ‘퀸장의 아름다운 찬양’을 재차 인정받아 영향력 있는 퀸장의 찬양의 자부심을 또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위원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섬김이 즐거워야함을 강조하셨다.

“찬양으로 수고함에는 마음의 정결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찬양의 즐거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고스란이 전달되는 것이다. 찬양위원회의 각 부서가 ‘찬양의 마을’로 이루고 역사, 규모, 내용의 훌륭함을 뛰어넘어 이제는 ‘퀸장의 찬양은 즐거움이 있다’는 이미지가 찬양위원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불타오르길 원한다.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 첫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두번째는 각 부서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섬김이 즐겁고, 감격과 감동이 되는 찬양이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 목숨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에 이어 간담회가 이어졌다.

2017년도에 처음 찬양위원회 위원으로 섬기게 된 조성순 집사(호산나찬양대 총무)는 ‘열심으로 섬기는 퀸장 찬양대에 감동했다’며 ‘앞으로 열심을 다할 마음’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보라 집사(호산나찬양대 반주)는 ‘퀸장의 반주자로 섬기에 되어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계속된 찬양위원들의 대담내용을 정리하면…

김명희 권사(글로리아싱어스 단장) : 젊은 층의 단원을 보강하며 변화를 갖고 있으나 교회와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기본정신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김미언 집사(관현악대 단장) : 학교를 졸업하는 단원들의 비자문제, 한국으로 귀국, 타주로 이주 등 인적이동이 많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젊은 단원들이 예배 후에도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심인보 집사(경배와 찬양 단장) : 담임목사님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님은 ‘어려움은 다같이 나누는 것이다. 부서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더 나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에 예배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예배준비자회의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하셨다.

소철화 권사(임마누엘찬양대 솔리스트) : 목관리에 늘 신경쓰고 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

채영주 집사(킹스콰이어 단장) : 교회설립 43주년 기념찬양제를 통해 지난 3년간 준비해온 곡들을 찬양할 것이다. 가장 즐겁게 찬양하며 교제가 뜨거운 합창단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김미견 권사(블레싱콰이어 단장) : 광야와 사막같은 삶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합창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

노선희 권사(그레이스콰이어 단장) : 성도로의 위치를 회복하며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젊은층을 보강한 ‘난타’를 계획하고 있으며, ‘라인댄스’(Line Dance – 방향을 전환하며 한 음악에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며 추는 댄스)를 도입하여 깜짝 놀랄만한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미희 권사(임마누엘찬양대 반주) : 예배 중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반주자에게 미리 통보 해주길 바란다. 토요새벽기도회 때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대의 착석이 완료되어 경건한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담임목사님은 예배준비자회의를 다시한번 제안하셨다.

정해성 집사(임마누엘찬양대 부장) : 교회의 다양한 행사 일정으로 인해 각 찬양대의 개별 모임을 갖기 어렵다. 연간 1회 정도는 각 찬양대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최경희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 : 즐겁게 잘 이끌어가는 지휘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남인화 권사(할렐루야찬양대 총무) : 예배 직전 찬양대의 입장순서가 없어져 아쉬움을 토로하는 성도가 있다. 수요예배 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곡 선정에 있어 잘 알지 못하는 찬양곡들이 있어 때론 지루함이 있다. 곡 선정에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담임목사님은 ‘찬양대의 입장순서가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배형식과 찬양은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노력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셨다.

채영주 집사(킹스콰이어 단장) : 예배 중 찬양대의 찬양후 자리이동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담임목사님은 ‘설교중 찬양대를 보면 불편한 자세로 강단을 보는 대원과 모니터를 보는 대원 등…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다. 시선이 제각각이다. 보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찬양대 자리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시간여의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은 담임목사님이 일일이 교회의 입장과 원칙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하셨다.

참석자 모두가 교회와 찬양위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찬양위원회의 모임을 마쳤다. 모임이 끝난 후 담임목사님은 참석자 한사람 한사람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며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셨다.

“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43)”

2017년에도 찬양위원회 산하 12개 부서와 팀은 주일예배 외에도 찬양축제, 칸타타, 발표회, 찬양예배 등 30여개의 예배와 교회행사를 섬기게 된다. 각 부서가 하나의 ‘찬양마을’을 이루고 이 마을들이 모여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찬양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이 기쁨의 소리로 멀리 들릴 것이다.

“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여 찬양 ”

뜨거운 열정의 블레싱콰이어 연습 현장 스케치

조성순 집사

블레싱콰이어는 여성 합창단으로 2015년에 발족하였다. 1대 단장에 김귀옥 권사를 이어 2016년 2대 단장으로 헌신하게된 김미견 권사가 올해도 단장으로서 금요일 오후 속속히 도착하는 단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연습 시작 8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삼삼오오 모여 친교도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의 연습도 시작되었다. 여기저기서 까르르 웃는 소리는 학창 시절 소녀들의 모습을 연상 시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블레싱의 기도와 섬김,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보좌하는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블레싱 합창단과 단원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찬양과 율동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여러가지 직책으로 헌신과 봉사함에 일인다역의 역활을 담당하기에 총무 최경선 권사, 반주 김정윤 집사의 도움을 받아 지휘 최경희 집사의 헌신적인 지도로 모든 단원들이 오늘도 저녁에 모여 정성껏 연습에 임하고 있다. 취재 당일 오디션에 통과한 두명의 새 단원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앞으로 다가올 찬양제를 연습하고 있었다. 찬양곡은 악보 없이 외워서 찬양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율동이 필요한 곡은 찬양과 율동이 조화롭게 잘 준비되도록 늘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한 마음 으로 한음 한음 화음을 맞추어 가며 반복되는 연습, 최선의 동작을 함께 연구해 내는 과정속에 퀸즈 장로교회 블레싱콰이어 단원들의 협력과 합심이 숨어 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살림을 하고 남편을 세우는 일에 지칠만도 할텐데 율동을 위하여 높이 들려진 손끝엔 전혀 피곤함이 보이질 않는다. 방금 전 직장에서 돌아온 손, 일상에서 돌아온 주부의 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딸의 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높여 드리기 위한 그들의 찬양과 율동에 딸들의 신실함이 묻어난다. 매주 첫째주와 세째주 금요일에 모여 정기적인 연습을 하지만 찬양제 연주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매주 금요일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지난해 블레싱 콰이어는 8회의 연주가 있었으며 올해는 6회의 연주를 계획하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흩어지면 헌신 봉사하는 블레싱콰이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온전히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신입 단원의 조건은 세례자 이상, 36세에서 60세 사이의 퀸즈 장로교회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위원회 김수산 장로, 음악 디렉터 윤원상 전도사, 단장 김미견 권사, 지휘 최경희 집사가 심사하는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하게 된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는 블레싱콰이어는 주께서 이미 이기어 주신 싸움을 승전가를 부르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장한 딸들의 찬양 공동체이다.

“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

웃고 떠들며 즐겁게 찬양하는 킹스콰이어 연습 현장 스케치

조성순 집사

2017년 2대 단장 채영주 집사, 총무 계대원 집사, 지휘 소유영 전도사, 반주 이송은 집사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단원 24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교회설립 43주년 기념주일 찬양제를 위하여 7곡을 선정하여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소유영 전도사의 지도에 따라 한곡 한곡 최선의 찬양을 함께 만들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모든 단원들은 오늘도 마음을 모은다. 8시에 단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9시를 훌쩍 넘는 시간까지 연습은 계속 되지만 중간 중간 실수를 통한 웃음과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는 화음으로 단원들의 얼굴은 하루의 피곤을 잊은 듯 하다.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찬양대 연습실 앞 식당 주변엔 벌써 몇 사람의 킹스콰이어 단원들이 모여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과를 마친 대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기 시작하고 연습에 앞서 간단하게 준비된 식사를 함께 하였다. 2014년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처음엔 안수 집사들이 초대 단장 이광윤 집사를 중심으로 찬양연습을 하였다. ‘사랑해요’를 첫 연주곡으로 시작하여 2014년 연말에 킹스콰이어란 정식 명칭을 갖게 되었고, 1대 정길표 장로를 중심으로 2015년과 2016년 충실한 연습과 활발한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성합창단으로 명실공히 자리를 잡았다.

매주 월요일은 사실 킹스콰이어 멤버들에겐 특별한 날이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한 기쁨이 있지만, 하루종일 애쓰고 교회로 향한 단원들을 맞이하는 정성껏 준비된 특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풍성하면 풍성한대로 조촐하면 조촐한대로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도 기쁨은 더하여진다. 때론 장난기 어린 모습들이 드러나 즐거움의 시간을 더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 할 때와 찬양 연습을 하는 시간엔 진지함이 넘친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관심이 있고 찬양을 좋아하는 세례자 이상, 현 퀸즈 장로교회 찬양대에 속한 대원중에서 지원자는 30명이 될 때 까지는 간단한 심사를 거쳐 언제든지 입단을 환영하며 이후엔 오디션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는 약 5번의 연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높여 드림으로 찬양하기 원하고, 남성 특유의 박력있는 찬양, 때론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하심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리듬있는 곡조로 표현 할 대원들에게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한다.

남성 합창단이 조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습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오늘의 킹스콰이어가 있을 수 있었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이제 킹스콰이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한 신앙의 고백을 전하는 귀한 남성 합창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중보기도 합주회

“ 울며 씨를 뿌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

1월 다섯째주 주일저녁예배를 중보기도합주회로 드렸다.

오인수목사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본문말씀은 시편 126:1~6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게 하나님 은혜안에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마른광야에서 홍수가 범람하는 기적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러한 기적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한다.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물이 생겨나는 역사,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된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때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땅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슬픔을 찬양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권 예배, 다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 ◆ 성전건축을 위해
- ◆ 대심방중인 각 가정마다 말씀이 있고 가정마다 믿지않는 가족을 위해 전도의 기쁨이 있기를
- ◆ 선교지 – 김관중, 이일훈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 모두가 놀란 감동의 무대, 킹스와 블레싱이 나섰다 ”

- 43주년 기념 음악회 -

이숙규 집사

지난 2월 19일(주일) 본 교회에서는 교회설립 43주년을 맞이하여 설립기념 음악회가 오후예배 때에 있었다. 이날 열린 음악회에서는 채영주 집사(킹스콰이어 단장)의 사회, 김미견 권사(블레싱콰이어 단장)의 기도 후에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이 날에 (삿 5: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었다.

이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설립 43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킹스콰이어의 [만유의 주재], [사랑해요], 블레싱콰이어의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후에 이단비 청년의 오보에 연주 [kazabue],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어졌다. 이어서 킹스콰이어의 [보혈찬송 메들리], [하늘영광 내 맘에 임했네], 블레싱콰이어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후에, 이주혁 청년의 첼로 연주 [The Swan], [축복하노라]가 이어졌다. 계속해서 킹스콰이어가 [여호수아 성을 쳤네], [내 평생에 가는 길]과 앵콜곡 [기억케 하소서], 이어서 블레싱콰이어가 [교회여 일어나라]를 찬양하였고, 다같이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찬양한 후에 마쳤다.

이날 음악회의 반응은 대단했다. 공연 중간중간 은혜의 감동에 따라 눈물을 훔치는 성도들이 많았고, 이를 바라본 합창단원들 역시 감동을 억누르며 찬양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킹스콰이어와 블레싱콰이어의 음악적 급성장이 놀라웠다. 창단 2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기량이 성령의 임재로 증폭되면서 참석한 성도 모두가 감동하는 충격적인 공연이었다.

43주년 기념 예배

“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 ”

퀸즈장로교회 43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본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 드렸다.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이규성 장로가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기도를 드리고,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행 7:36-38) 말씀선포와 장학금 수여식, 고국환 장로와 이근우 장로의 시무장로 은퇴식 등의 특별한 순서가 이어졌다.

성도들이 가족기념으로 드린 장학헌금과 교회의 장학기금이 모아진 장학금은 심오섭 청년을 비롯한 총 25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고국환 장로의 답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신앙으로 퀸즈장로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왔는가를 느끼게 하였다. 퀸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켜온 지난날을 회상하는 중간중간 여러 성도들과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신 임정 장로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혼성중창단의 특별공연과 김주영, 홍보라, 문태양 학생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트리오의 연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장영춘 원로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끝으로 지난 43년을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됐다.

교역자의 심방이야기

探访见证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陈玉捷传道 (천위제 전도사)

自从开始负责中文堂的牧养事工后，开始逐渐发现很多信徒都有不同的难处，不同的困境。信仰生活不是单单在教会里面的，更是在平日的生活里。信靠耶稣是很实际的，不是一个宗教，不是一篇理论，更不是一个精神安慰，而是很切实的生活实际。这让我想起了一位已回天家的华人老牧者的一句话，“蒙召作传道人，一生的使命乃是：用神的话语带领人信主，栽培人的灵性，坚固他们的信仰，并且带领他们生活。”– 沈保罗牧师。身为传道人，不单止要用神的话语去栽培坚固信徒的信心，也要在他们的实际生活里带领帮助他们。

在旧约旷野里的大祭司，神为他预备了所有的服装，从帽子、衣服到裤子，全都有，就是没有鞋子。而会幕，从前面到后面，从左边到右边，包括会幕顶盖都有详细的描述，就是没有地板。换句话说，大祭司是打着赤脚，踩着旷野的石头路在会幕里事奉神。这再次提醒我们，基督徒的信仰生活不是单单在圣殿里面敬拜赞美神，也是连在实际的生活里。信徒要在这充满石头（困境）的人生中，事奉神，经历神，认识神。而我们传道人也是要在生活中帮助带领信徒活出信仰的实际，经历、认识上帝的丰盛。因此，探访是如此的重要，让我们可以在信徒的生活里帮助带领他们。

一位姐妹经过多年的祷告与挫折，终于在去年得到了上帝所赐的产业，并在圣诞节诞下了这婴儿，开心感恩的不得了。可是没有想到，女婴的心脏大动脉没有接到右肺里面去，使婴儿不够氧气，呼吸困难，随时丧命。这对于这位姐妹来说是何等大的打击。刚刚出生的婴儿就有生命危险，并且要立即动心脏手术。而医生也说没有十足的把握。在这个艰难的时刻，姐妹和她先生都是以泪洗脸。我和不同的弟兄姐妹就去他们家里探访她，安慰她，鼓励她，用神的话语坚固她的信心。后来，我们又去医院为婴儿转院动手术前祷告，并安慰坚固他们夫妻的信心，让他们专心仰望神。那时她先生还未信主，但是上帝乃是一位叫万事互相效力的神。在这个医生靠不住，医学靠不住，科技靠不住的时刻，他们所能倚靠的，只有上帝。感谢主，因着这个危机，姐妹的先生转向了神，他愿意悔改，求神赦免他的罪，帮助他，带领他。夫妻二人同心认罪祷告，先生接受耶稣基督作为他个人生命的救主与主宰。

教会的弟兄姐妹也很有爱心，肢体主动的送姐妹进出医院，陪同他们，成为他们心里的力量与安慰。虽然第一次手术做完后，没有彻底的解决婴儿的问题，但是我却看到姐妹的信心开始成长，没有了起初的恐慌失措，而是多了几分的淡定。她继续参加崇拜，有时在微信中看到她转发的一些信仰经历文章，见到姐妹的信心在主里没有软弱，反而刚强了。真是感谢赞美主！他们继续的祷告仰望上帝医治他们的女儿，而我们相信神必拯救医治到底。

信徒就是在这样子的人生不同的风暴里，一次又一次的经历神。对耶稣基督的认识不是单单的头脑知道，而是生命的体认，真实地遇见了那位平静风浪，踏海而来的救主。因着这些人生的经历，我们的信心成长，灵性成熟，越来越得着耶稣基督所应许的那丰盛的生命。像约伯所说，“我从前风闻有你，现在亲眼看见你。” 伯42:5。当我们在苦难当中得着神要我们所得着的之后，“耶和华就使约伯从苦境转回，并且耶和华赐给他的比他从前所有的加倍。”伯42:10。因为，我们的神，祂 的本意乃是要赐福赐平安与我们。

“耶和华说：我知道我向你们所怀的意念是赐平安的意念，不是降灾祸的意念，要叫你们末后有指望。” 耶 29:11。

哈利路亚！感谢赞美爱我们，在我們人生的每个患难中与我们同在的神。愿一切的感恩、赞美与荣耀都归给祂，直到永永远远！

阿门！

중국어 예배부를 책임지고 목회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서로 다른 어려움과 상황을 가진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일생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한편의 이론도 아니며, 더 더욱 하나의 정신적인 위로도 아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이다. 이는 저로 하여금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중국 노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부르심을 받은 전도사의 일평생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영성을 배양하며,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 심바울 목사”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도 이끌어가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의 광야가운데 살았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상을 예비하셨다. 모자부터 시작하여 옷에서 바지까지 모두 구비 되었지만, 오직 신발은 없었다. 회막 또한 앞에서부터 뒤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회막 지붕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오직 바닥은 깔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맨발로 광야의 돌길을 딛으며 회막에서 주님을 섬겼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성전 안에서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은 생활과 연결되어 성도들은 돌멩이(고난)가 많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체험하며 알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우리 전도사 역시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끌어가야 한다. 심방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매는 몇 년의 기도와 시련 속에서 작년에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상속받았다. 마침 크리스마스 날에 아기가 태어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것은 아기의 심장대동맥이 오른 쪽 폐와 연결 되어있지 않아 아기가 호흡에 어려움이 있어 산소가 부족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이 자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충격 이였겠는가! 금방 태어난 아기가 생명의 위험을 가지게 되고, 또한 바로 심장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의사도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다고 하였다.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자매와 자매의 남편은 눈물로 얼굴을 씻으며 지냈다. 저와 여러 형제, 자매는 번갈아 가면서 자매의 집을 심방하게 되였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 후, 우리는 병원에도 찾아가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심장수술 받기 전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부부의 믿음이 굳건히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였다. 이 시기는 자매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다. 의사를 믿을 수 없고, 의학, 그리고 기술을 믿을 수 없는 시기에 그 부부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이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자매의 남편은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했다. 부부는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사랑이 많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주동적으로 그 자매가 병원으로 잘 다닐 수 있도록 바래주고, 함께 하면서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되였다. 처음 수술한 후에 아기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자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가졌던 무서워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매는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였고, 가끔은 웟쳇(wechat)에 자매가 올린 신앙체험 글을 볼 때, 자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약해 지지 않고 도리어 강하게 됨을 보았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부부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딸아이를 고쳐주시길 기도하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심을 믿는다.

성도는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 속에서 한번, 또 한번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체험이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분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인생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영성을 가지게 되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은 후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욥42:10)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니라 ”(렘 29:11)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의 환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Интересные события на посещении.
감격과 감동의 ‘음식 고문’

송요한 목사

Зная о некоторы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на различных посещениях,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рассказать о посещении, которое было по настоящему для понимания культуры когда мы с вами посещаем некоторые страны мира. Когда я был молодым проповедником в Корее я служил в церкви ≪ЧунгХен≫. В то время служа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нелеагальных рабочих в Корее, в нашей церкви было не маленькое собрание человек около 200. Эти люди в основном выходц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Мы оказывали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их жизни в Корее, когда это была юридическая, финансовая и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Бывали случае, когда нам приходилось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директорами заводов на которых они работали, изза не своевременных выплаченных зарплат. Конечно это была не легкая работа, но она стоила этого, потому что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приходя иногда за помощью, они находили Христа. Среди членов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обрания были также и выходцы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Было их около 50-60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это были люди из Самарканда. Поэтому летом в нашей церкви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на команда из членов корейского собрания для миссионерской поездки в Самарканд. Мы хотели посещать семьи эти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приходили к нам в церковь. Когда м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мы поедим к ним домой, все были очень рады. Ведь эти люди получали большую помощь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И каждый из них попросил отправить маленькие посылки домой. Мы все взяли и поехали на три дня в Самарканд с миссионерской группой. По приезду в Самарканд начались наши посещения по домам семей наших членов церкви по домам. Но... мы не учли одной культурной особенности, гостепреимства людей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также мы не учли что их будет очень много за три дня. В первый день нас пригласили в 12 домов. В каждом из них еды было столько, что это было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даже просто попробовать. Ведь все готовились заранее к приезду. Это был примерно по четыре завтрака, обеда и ужина. После этого мы поняли, что так можно просто остаться больными на такой поездке. Члены команды просто плакали потому что не могли даже смотреть на еду. А их буквально заставляли поесть.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мы сказали что мы будем есть только в трех домах, на что мы увидели реальные слезы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щущали обиду. Мы разделили группу. Что бы посетить больше домов. И даже это не сильно помогло. И на третий день мы просто собрали всех в одном доме и раздали посылки каждому, и стали проповедывать Христа. Я вспомнил об этом эпизоде по причине того, что нам 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о иногда учитывать,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тех стран в которых мы служим людям. Потому что без этого, мы не сможем с ними найти общий язык. Апостол Павел говорит в 1е Кор 9:20 □для Иудеев я был как Иудей,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Иудеев; для подзаконных был как подзаконный,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подзаконных≫. Павел это понима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я эти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мы можем лучше донести Иисуса Христа. В нашей церкви мы стремимся к мультиэтнической церкви, думаю что нам также стоит учитывать, многие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поведывать Иисуса Христа эффективно народам и нациям.

우리가 정말 심방을 할 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국

에 있는 충현 교회의 선교전도사로 선교위원회 외국인 선교부에서 섬겼습니다.

저의 사역은 러시아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옛날 구소련에서 와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약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배와 심방, 다른 법적인, 재정적인, 의료상의 도움을 통해 섬겼습니다.

가끔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 때문에 월급을 못 받으면 우리가 공장 사장들에게 가서 그 월급을 받게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우리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약 70-80명 정도가 우즈백이스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많이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즈베크에 단기 선교로 나가면 우즈베크에 있는 각 성도의 집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성도들의 집을 심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단기선교에서 우리가 우즈베크에 가서 잠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할 계획을 세운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전화하여 우리(단기선교팀)가 간다고 알리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약 삼일을 계획하여 우즈베크로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인 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크는 회교권 나라이기 때문에 손님 대접은 제일 중요한 일이고, 더 더욱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가장들이 보낸 손님이라 모든 집에서 대접하는 밥상은 잔치상이었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12집을 방문했는데, 모든 집마다 잔치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약 4번 음식을 먹어야 될 일이라 우리의 건강에 위험이 있고, 오히려 모든 집에서 차린 음식을 못 먹어서 역효과가 있는 것 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젊은 팀원들은 음식으로 거의 고문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세 집에만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고 자기 집에 꼭 와야 한다고 울고불고하였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한 집에 모여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때 정말 문화적인 요소를 잘 이해를 못 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민족 선교로 나가는 우리 교회는 아마도 다른 민족을 섬길 때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전 9: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하는 마음 이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집니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십년 만에 다시 심방 길을 나서면서 "

고부영 전도사

올해는 10년 만에 다시 1교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에 심방했었던 가정도 있었고 처음 만나는 가정에도 찾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1교구는 18지역에 79구역, 750여명, 후러싱, 브롱스, 브룩클린, 맨하탄, 뉴저지에 사시는 교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심방을 시작한 후러싱 지역은 연세가 많으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심방을 하면서 기도제목을 여쭈어보면 거의 대부분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뉴저지 지역에 속하신 분들은 시간과 톨비가 많이 드는데도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며 헌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읽게 되었고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시고, 브룩클린 지역, 맨하탄 지역, 브롱스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을 뒤로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충성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충성하시는 모습에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날마다 오시면 좋겠다.

후러싱에 거주하시는 한 가정을 심방하였습니다.

97세 되신 권사님이십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출입이 어려우시지만 꼭 목사님 심방을 받아야 한다며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권사님은 주님을 만난 것 같이 기뻐하시며 어린아이 같은 해 맑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반기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경을 쓰시지도 않으셨는데도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가리" 부르시는 권사님의 목소리는 우리들보다 더 힘 있고 쩌렁 쩌렁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옆에 앉으셔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다과를 드시는 목사님에게 '더 잡수세요. 이것도 잡수세요. 목사님이 날마다 오시면 좋겠다.' 계속 반복하시는 권사님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왜 벌써가요 더 있다 가시지...'하시는 권사님에게 날씨 풀리면 교회서 뵐께요. 하며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모하시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뵈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권사님과 같이 기뻐하며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

살아 있는 심방이 되길 기도하며.....

심방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어 같이 울기도하고 아픈 가정을 심방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지쳐있는 가정에 가면 말씀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말 못할 고민을 가진 가정에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대화를 하며 용기를 드리는 살아있는 심방이 되길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선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나누면서 올 한해도 심방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고, 열리는 형통된 축복이 흐르는 가정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20년전 걸려온 한통의 전화 " 중국에서 왔어요 "

계화자 전도사

1997년 어느날 교회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퀸즈장로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반가움으로 주소를 찾아가 보니 바로 2블락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교회 위치를 알려드리고 잘 안내하고 돌아왔습니다.

1997년 11월 9일 등록하신 허순여 권사님과 딸 이현숙 집사님

그분은 그 주간 바로 교회 나와 등록을 하셨고 이미 중국에서 핍박가운데 신앙을 가지셨던 분으로 미국에 오셔서 편찮으신 남편을 모시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시며 신앙 생활하시던 아름다운 모습이 눈물겹게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허순여 명예 권사님으로 편찮으셔서 지금은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투병 중이십니다. 후에 미국 오셔서 등록하신 따님이 집사님으로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8년 황보명옥(김명옥)집사님이란 분이 중국에서 오셔서 우리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로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섬겨왔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마침내 중국의 남편과 딸, 아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손녀딸을 낳았고, 아들은 중국어 예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1998년 8월 11일 등록하신 황보명옥 집사님과 남편 황보은수 교우

이후 퀸즈장로교회에 중국 교포들이 계속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00여 명이 넘는 교포들이 퀸즈장로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올해는 2교구 17지역중, 5지역으로 480여명의 교포가 2교구에 등록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심방한 중국교포 가정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태어나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포 담당 황혜옥 전도사님을 통하여 중국 교포분들의 문화를 배우며 함께 교포 가정을 심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포 분들이 미국에 오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주일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포들에게 '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퀸즈장로교회 교우님들과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교포분들의 마음을 쉬지 않고 두드리셨습니다.

중국교포 중 많은 분들이 새가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습, 세례공부, 전폭, 교회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뉴욕에 있는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중국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계속 들려 드렸습니다.

교포 114기 새가족 학기 졸업생

이제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 퀸즈장로교회로 많이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중국 교포가정의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필요에 의하여 시작하였지만, 차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포들이 집사로서 퀸즈장로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전 설립된 중국어 예배가 퀸즈장로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퀸즈장로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중국어 예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1997년 한 중국교포 분의 전화 통화로 시작되었지만, 마치 한 알 씨앗이 심겨, 우거진 나무를 이루고, 수 많은 새들이 앉아 쉴 수 있게 숲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가슴벅차 오릅니다.

퀸즈장로교회를 통하여 이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5개의 교포지역중 2교구 3지역의 구역예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함미희 전도사

처음 맡은 4교구..

지난 연말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고 첫 심방부터 지금까지 대심방의 모든 순간 순간을 지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교구장으로 처음 뵙는 분이나 오랜 세월 교회에서 인사하며 지냈던 분들까지 모두들 정성으로 준비하여 심방을 받으시며 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마음을 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이번 심방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며 또한 기도의 잔을 채울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롱아일랜드와 교회 근처의 플러싱, 와이스톤, 엘머스트, 우드사이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퀸즈와 롱아일랜드를 오가며 지낸 두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먼거리도 기쁨으로 운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쁜 아기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퀸장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많은 어린 꿈나무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육부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시고 치유의 기도 때에는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을 기다리는 많은 젊은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을 위하여 만남의 축복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말씀을 들고 갔지만 올때는 풍성한 사랑을 한 가득 안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한해가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또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멋지게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함께 부른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

퀸즈장로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재정칼럼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정훈 집사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에는 절세와 관련된 다양한 재정 상품과 관련 산업들이 그 어떠한 국가보다도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세관련 재정계획에 가장 정통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생명보험을 활용하여 유산 상속의 방식으로 활용 한다거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종 Bond 구입을 통해 성년이 되기 전에 일정 정도의 자산을 사전에 쌓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입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많은 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은퇴 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등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떠한 종류의 것이 되었던 간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젊은 성도님들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생명보험 등이 포함됩니다)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이제 은퇴 준비가 당면 과제로 다가오고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도 각자의 연령대에 적합한 은퇴준비 상품 (다양한 은퇴연금 상품 등등이 포함됩니다)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래의 세가지 요소는 재정계획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1. Market Risk (투자시장 상황의 가변성): Mutual Fund, IRA, 401k 등등의 구좌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트를 최소화하지만, 항상 등락의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시장 상황을 상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등락의 표고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이와 같은 투자시장 상황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식의 계획과 제품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2. Longevity (평균수명의 연장):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비교하여 요즈음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소 80세 이상까지 생존하고 있으며 향후로는 90세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65세 정도에 은퇴하여 약 15년 정도 살아갈 자금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30년 이상을 살아갈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당연히 의료관련 비용도 더욱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한 달간의 씀씀이로는 부족한 소셜 연금 시스템마저 고갈되어가는 지금, 이를 보충할 은퇴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3. Inflation (물가상승 요인): 생활비는 절대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즉, 지금의 $100만불이 30년후에 똑 같은 가치의 $100만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20년 혹은 30년후의 삶을 계획할 때에는 지금의 화폐 값어치와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 저축해 둔 각종 자산이나 CD등 상품의 경우 물가상승의 percentage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세월이 지날수록 해당 자산의 Value 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상쇄할 방법들 또한 다양합니다.

준비, 되도록 이른 준비…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QPEM News

Small Group Meetings

Praise God for launching our new small groups for 2016-17. We have 18 small groups broken down by life stage and location. We have begun a brand new bible study series titled, "Gospel Shaped Living" from the Gospel Coalition. Small groups are a great way to meet and build new friendships. If you have not yet been plugged into a Small Group, please speak to any of the small group leaders! Let's join in as God shapes our hearts through the Gospel in our Small Groups!

QPEM Month of Prayer & Fasting - February.

KAPCQ has an ongoing 24/7 year round fasting and praying for our church. For the month of February, QPEM has taken the mantle to fast and pray for our entire church. Join in to sign up to pray and fast for our church and leaders in the month of February. You can visit www.qpem.org/prayer-fasting for more info.

Wednesday Prayer Night /Children's Worship

Join us each Wednesday for our weekly prayer night from 8-9PM. One sure way that the Gospel shapes us is through prayer and repentance. Come and meet your Abba Father as He shapes us in the Gospel!

Mercy Ministry - Volunteer Opportunities

We have two upcoming mercy ministry opportunities to serve:

1) New Franklin Center (Rehab &Nursing)—Feb 25, 10:30AM

There will be a volunteer orientation followed by a Meet & Greet with some of the residents. Activities include board games, story telling, etc.

2) Garden of Hope Spring Day Camp—April 10-14th

The camp will needing volunteers from 9am-5pm. If you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Deacon Marcelo Chan at 480 861-0298 or marc32905@yahoo .com to get more information.

Evangelism Explosion (EE) Training - Starting Mar 7 @7PM

EVANGELISM EXPLOSION

We will begin our Evangelism Explosion (EE) 54th Class starting in March. This is a beginner-friendly evangelism training in which you learn how to naturally and comfortably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the people around you. EE will fully equip and prepare you for summer missions. EE is a 13-week course meeting every Tue evening 8:15PM-10PM. Dinner is provided at 7:45PM. You will receive an official EE certificate and badge upon completion. Please speak with Deacon Jonathan Hong if you're interested or have any questions.

Prayer Requests

a) Pray for our brother Dong Kwon Park that he will be healed from his seizures. Pray that God would give him and his family a "Gospel-shaped faith" to trust in His perfect plan.

b) Please pray for Roger & Teresa's son Dylan (5 years old) as he has been battling cancer (Neuroblastoma) and undergoing chemo treatments. Dylan is currently at the Ronald McDonald House in Manhasset receiving radiation therapy. Please continue to pray for complete healing and that Dylan will be a living testimony of God's power and mercy. If you are able to visit, please speak to Pastor Peter.

“ Garden of Hope ”

QPEM Mercy Ministry Outreach

By Maggie Lee

QPEM was blessed to serve with the Garden of Hope ("GOH") organization for our Mercy Outreach ministry. GOH is an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that serves women who are abused, abandoned and have nowhere to turn. These women live in hiding and darkness. A little over a year ago, my family hosted a sister and her two boys who were kicked out of the home by her husband. Therefore, I first hand witnessed how difficult it was for the family that was going through such situation. It is something that stayed with my heart from then on.

Earlier this year, one of our discipleship groups served to provide a year's worth of needed supplies for about 80 women and 20 children who live in shelters due to domestic violent, sexual abuse and human trafficking etc. God’s mercy reached to them started with that little step from QPEM

The GOH Christmas celebration was hosted at the First Baptist Church of Flushing, a couple blocks away from KAPCQ. We were primarily tasked to lead a Gospel worship service to the 80+ children and also to support the mothers at its Christmas party. QPEMers who came were divided up into a few groups, a group to evangelize to women, a group to help with set up, and a group to lead the children program. QPEM partnered with the Chinese Ministry to evangelize to the women as the majority of the women there only spoke Chinese. Praise the Lord! At the First Baptist Church, there were at least 40 brothers and sisters came to serve from our church.

During the event, I saw QPEM members serve in many ways; taking pictures for the mothers and kids, carrying and

Garden of Hope Praise Time with Kids 1

servicing the food, distributing the gifts to the women and children. There was a peaceful coordination among volunteers who didn’t even know each other. If you were there, you would sense that it is God’s hands at work.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re were 15 women who came to receive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For a lot of women, they probably experienced being hopeless but through the message, they found Jesus as their hope. What a beautiful gift for Christmas! Our evangelism team was there to clarify the gospel and pray for women who committed their lives to Jesus after the service. I personally spoke to a mother and a daughter. They both received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How awesome it is for that mom and her daughter to

Garden of Hope Group

have the same re-birthday! Praise God for his miraculous work! When speaking with them, even without much drilling down to the detail of their personal background, I could feel the mixed feeling of pain (what they were experiencing) and joy (of the salvation) at the same time.

Pastor Peter and Pastor Kiwi, along with many members led the Children's worship. We led a time of worship, sharing the Gospel message and we even had two of our KAPCQ students- Daniel and Elijah, share their testimonies! The teachers then had a moment to pray for all the children.

Pastor Peter later described the event during a Sunday sermon as being on a mini-missionary trip. We shared Jesus Christ for the first time to children who had never gone to church before. Even though we did not know what to expect, everything somehow got done because our Lord was with us. Praise God! As for me, God filled me with unspeakable joy both during and after the party. I am so thankful to take part in this event.Also very thankful for sisters and brothers who donated time, finances and gifts, for various leaderships from the church. We provided a glimpse of hope for the women and children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May God’s love find those who heard the message, but did not come to Christ that day! And may He continue to overflow them with hope, provide strength, love and peace for those who came to receive Him! It is Jesus who enabled all of us to serve in unity despite the fact that we had come from different churches. It is Jesus who is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ose who follows Him will not walk in darkness anymore,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All glory to God the Father! Perhaps next year, God will call our church to host the celebration for those suffering women and children.

Garden of Hope Praise Time with Kids 2

“ Visitation and Prayers for Dynamic Dylan ”

Rev. Peter Kim (김도현 목사)

Dylan & Leaders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rews 4:16

There's a little 5 year old boy named Dylan Panchoosingh, the son of Roger and Teresa, members of QPEM,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rare childhood cancer called neuroblastoma. It's a cancer that affects children in their nervous system and last April, the cancer had spread to Dylan's bones which classified his cancer as Stage 4. Dylan has battled this cancer for the past year, receiving chemotherapy at the Cohen's Children's Hospital.

During each visitation to see Dylan, this five year old boy has given us a glimpse of what the strength of the Lord truly looks like. Even after undergoing six cycles of chemotherapy, Dylan has displayed a joyful spirit and a perseverance that encourages and challenges everyone he meets. Like many of the super hero action figures that line his hospital room, Dylan is truly a fighter. We've shared with him the story of the greatest superhero he has in God's Son, Jesus Christ. We pray that Dylan would come to know Jesus personally through his trial.

Our church has been praying for Dylan each week that Dylan and his family would receive healing, mercy and grace during their time of need. Praise God that just a few months ago, the testing found that most of all Dylan's tumors were gone! This is truly God's answered prayer. There are still some cells that were found in Dylan's bone marrow. As such, Dylan is continuing radiation therapy and has been going in and out of the hospital. Currently, he is staying at the Ronald McDonald House as he finishes his 2nd stem cell transplant. There will be two more chemotherapy sessions and more surgeries ahead. However, Dylan and his parents are hopeful that God's plan will carry them through this challenging time. With the love and support from our church, Dylan and his parents continue to press on and fight his cancer.

We ask for continued prayers and support to Dylan and his family. Let's pray for the love of Christ that will strengthen their faith and encourage them with hope as they continue to persevere during this trial. Let's pray that Dylan's life would be a testimony of God's amazing grace and that his life would lead many to know Jesus Christ. If you would like to visit or support Dylan, please speak to Pastor Peter. Let'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and pray for the mercy and grace for Dylan and his family during this time of need!

설 퍼레이드

지난 2월 4일 토요일 플러싱 중심가인 유니온과 메인 스트릿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퀸즈 한인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설 퍼레이드 & 우리 설 대잔치'가 있었다. 뉴욕가정 상담소, YWCA, 민권센터 등 플러싱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플러싱 내의 한인교회들, 그리고 많은 중국 커뮤니티 단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동참하였다. 특히 본 교회에서도 한어권, 중국어권 교인들 그리고 4부예배 경배와 찬양팀도 이 퍼레이드에 함께 하였고, 본 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어권 담당, 러시아어권 담당, 그리고 교회의 여러 교역자들이 이 퍼레이드에 함께 하여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있었던 퍼레이드 행렬은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109경찰서에서 출발하여 샌포드 에비뉴를 통해 키세나 블러버드와 메인 스트릿으로 이어지는 약 50분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 양 옆으로는 플러싱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또한 퍼레이드가 끝나고, 주최측에서 퍼레이드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산수갑산과 금강산에 무료로 떡국을 제공하였고, 특히 금강산 연회장에서는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이 날 퍼레이드에 함께한 한 청년은 한 교회의 일원으로 퍼레이드를 참가한 것이 매우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점점 더 다민족화 되어가는 이 플러싱 지역에 한,중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였던 이 퍼레이드 행사에 계속해서 교회도 함께 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에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숙규]

中文堂祷告会 중국어예배 기도회

- 崔琴执事 (Cui Ruoqin 집사)

圣经记载耶稣开始事工前以祷告开始；使徒时期初期教会的成立，也是先同心合意的恒切祷告，使徒大有能力，教会复兴。历世历代的教会都是以祷告开路，开拓各项事工的。中文堂从成立以来，很重视周三的祷告会。陈玉捷传道亲自带领，当人数增加时，增添了分享圣经的信息。

中文堂祷告会的宗旨乃是为韩中长老教会的复兴，成为多民族多文化传福音，并以神的荣耀为目的的教会。我们具体的为四堂所有牧者祷告，愿他们所做的福音事工满有果效，并有口才讲明福音。我们也为金星局主任牧师祷告，求神帮助祂的仆人总有新的异象，新的起点，使韩中长老教会成为一间传福音，被圣灵充满的教会。

祷告会里也为中文堂成为一个有爱心、圣洁、完全的堂会祷告，为陈传道大有能力，满有恩膏地带领会众，牧养信徒代祷。最近聚会人数增加，感谢神。陈传道在新的一年开始，为主任牧师所定下的目标，让韩中长老教会、让中文堂的会众各个成为凭信心而行的信徒祷告。我们也求神兴起有不同恩赐的人来服侍众人，为信徒悔改、渴慕聚会、祷告、读经与神建立亲密的关系呼求，为信徒有美好的品格和成熟的属灵生命祷告，也为教会更深的团契生活，拓展事工与人数增长祷告。

中文堂要继续复兴周三的祷告会，进入基督的信望爱。求神帮助我们，与我们同在。荣耀归于神！

[可1:35] “次日早晨，天未亮的时候，耶稣起来，到旷野地方去，在那里祷告。”

[徒1:14] “这些人同着几个妇人和耶稣的母亲马利亚，并耶稣的弟兄，都同心合意地恒切祷告。”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 기도부터 시작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가 설립된 것 또한 모두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기에, 사도들이 능력을 얻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역대 교회들 모두 기도로 길을 열었고, 여러 사역들을 개척하였다. 중국어예배부도 시작해서부터 마찬가지로 수요기도회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천위제 전도사님께서 친히 기도회를 인도하셨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셨다.

중국어예배 기도회의 최종목적은 퀸즈장로교회의 부흥과 다민족, 다문화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4개 예배부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이 하는 복음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또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기도한다. 또한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도우셔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기점이 되어서 퀸즈장로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기도회에서는 또 중국어예배부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부가 되길 기도한다. 천전도사님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중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최근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천전도사님 또한 올해 담임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중국어회중을 비롯한 퀸즈장로교회의 회중 한사람 한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또 각각의 은사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모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길 기도한다. 또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품성과 성숙한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교회에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역의 확장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기도한다.

중국어예배부는 앞으로도 수요기도회를 더욱 부흥시킬 것이며,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구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막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행1: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QPCM News / 教会消息

感谢神复兴中文堂，因着中文堂的人数增加，座位开始不够。从三月份开始，中文堂将有第二堂崇拜，在副堂每周日的下午四点开始。弟兄姐妹可以自由选择参加早堂9:30AM的崇拜或晚堂4:00PM的崇拜。也请弟兄姐妹努力邀请未信主或没有母会的亲人和朋友回来参加每周的崇拜。当天由主任牧师进行开幕式，为崇拜，预备信息的陈玉捷传道，也为神服侍的弟兄姐妹祷告，再次感谢阿爸父神！

중국어예배부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예배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3월달부터는 2부 예배가 QPEM에서 매주 오후 4시부터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9:30AM 예배 혹은 4:00PM 예배를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초대하여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께서 오셔서 개막식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실 천전도사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中文堂第一届新朋友班从1/15开始到3/5在体育场， 我们有七周的新朋友班，让我们在当中对我们的教会有个基本的认识，并且知道我们的基础信仰。3/12将有毕业礼，没有参加满六周或七周，不能参加毕业礼。缺席一个课程者，毕业礼后，要补上所缺席的课程，也为3/12毕业礼祷告，求神与每位新朋友同在。

중국어예배부 제1기 새신자공부가 1/15부터 3/5까지 체육장에서 7주간의 새신자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신자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교회를 기본적으로 알아가고, 기초적인 신앙을 굳게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12에 졸업식이 있고, 만일 6주 혹은 7주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는 졸업식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한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졸업식 후에 마치지 못한 공부를 보충하면 됩니다. 3/1에 있을 졸업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부탁 드립니다.

春节游行 신년 퍼레이드

- 姜琼执事 (Jiang Jiqiong 집사)

来美国将近14年，我还是第一次参加上周六2月4号、在Flushing举行的庆祝中国新年游行活动。Flushing 人多是人所共知的，但当天游行时的人山人海，还是出乎我的意料。最让我欣喜不已的，是我們韩中长老教会因着异象清楚、目标明确，更为了福音的缘故，在当天组织了联合步道，把传福音与社区活动结合得天衣无缝。我们教会的方阵，由载有敬拜乐队的卡车、及拉着四种语言写成的"耶稣爱你" 的横幅组成。随着游行队伍的缓缓前行，乐队赞美诗歌、及 "耶稣爱你"、" Jesus loves you" 的口号声此起彼伏; 那种力度、那种震撼，使我深深体会到什么叫 "心欢喜、灵快乐"。

当看到一支支伸出来接受福音的手，几百份福音单张在走了不到 三分之一的路程、就全部发完的时候，我仿佛听到主说 " 这城里有许多属我的人" 。是的主啊，若不是你的怜悯，谁能口里承认、心里相信你是天地万物的主宰， 我們的生命气息都在乎你呢! 你愿意万人得救，不愿一人沉沦。甚愿我們这些蒙你大恩的人，都能体贴你为父的心肠，在我们寄居世上的年日，无论得时不得时，总要传扬福音、多救些人，将我们这白白得来的恩典，竭尽全力的传递出去，好让主的名在全地被高举、得着那当得的荣耀。

甚愿主纪念当天冒着严寒参加游行佈道的主任牧师夫妇、其它堂会的牧者、传道和弟兄姊妹，以及中文堂的25名弟兄姊妹。也感谢教会对华人同胞的无私奉献和拳拳爱心，深信大家的付出在主里不是徒然的。求主继续保守、带领我们韩中长老教会，在主里合而为一; 也甚愿在主任牧师、全体牧者及长,执同工的带领下，2017年全教会能稳行在高处!

미국에 온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처음으로 2월 4일 토요일에 플러싱에서 열린 신년 퍼레이드에 참가하게 되었다. Flushing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날 퍼레이드 때에 인파가 몰려든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었다. 더욱 기뻤던 것은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정확한 비젼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 날에 연합전도회를 열어 전도와 구역활동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진행하게 된것이다.

우리 교회의 대열은 경배와 찬양팀을 태운 차와 네가지 언어로 씌여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플랭카드로 구성되었다. 퍼레이드 대열이 앞으로 서서히 나아가면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라는 구호를 잇따라 외치며 나아갔다. 그 힘과 전해오는 그 전율속에서 진정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운”것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하나의 손길을 보면서, 몇 백장의 복음전단지가 1/3의 거리를 가지 못한 채 모두 나눠 준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 곳에는 내게 속한 사람들이 많단다”라는 음성을 듣는 듯 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누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재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숨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명도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 은혜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동안,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애쓰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큰 은혜를 온 힘을 다해 전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이 올려드리며 장차 다가올 그날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퍼레이드에 참가하신 담임목사님 부부와 기타 교역자들, 성도들과 중국어 예배부의 25명의 성도 한명한명을 모두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 드린다. 또 교회에서 우리 중국동포들에게 베푸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에도 감사드린다.

모든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안에서 하나되기를 간구한다. 또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동역자들 모두 2017년 한 해에도 안정된 발걸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북미의 다민족 / 다문화사역과 북미의 한인디아스포라교회

임찬혁 선교사

* 이 글은 Korean Journal of Frontier Missions에 먼저 발표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

글로벌 디아스포라, 즉 민족들의 대 이동은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글로벌 현상들 중 하나이다. 세계 곳곳에, 거의 모든 나라에, 이주민들이 흩어져 있지만, 미국은 가장 많은 국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이민자의 나라'이다. 2016년 미국인구조사국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구의 13.3퍼센트가 해외출생 이주자이며, 2043년이 되기 전에 백인이 미국 사회의 소수 계층이 될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개국 150년이 되는2017년에는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2031년이면 15세 이상의 인구의 46%를 해외출생 이주민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세계의 열방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이와 같은 글로발 디아스포라 현상 속에서 북미 교계에서는 다민족/다문화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의 한인 교계(다민족/다문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교계도 역시)는 아직 이러한 글로벌 디아스포라 현상을 선교적인 면에서 보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듯하고, 따라서 다민족/다문화 사역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앤드류 월스(Andrew Walls) 교수가 2011년 4월 7–9일에 열린 Wheaton College Theology Conference에서 "The Rise of Global Theologies"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그의 발제문에서 월스 교수는, 교회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단일문화권이 아닌 이중문화권 (유대–헬라, 혹은 유대–라틴 문화 같은)에서 존재해 왔으며,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등으로 움직여진 것에서 보듯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영구적인 글로벌센터(이슬람의 메카와 같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500년(1500–2000년)동안, 세계 기독교의 주도권이 유럽과 북미 중심의 서양교회에 있었지만, 21세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교회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일 신학교의 라민 싸네(Lamin Sanneh)교수는 '기독교의 미국화와 미국의 기독교화'에 대한 그의 발제문의 결론 부분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이민 그룹들이 미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새로운 기독교 운동("Christian movements")을 감당할 "열쇠(key)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북미의 다민족/다문화 사역이 미국교회의 희망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필자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21세기에는 Christendom이라는 지정학적인(territorial)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세계가 이곳(북미)에 모여있다("All the world is here!")고 말한 바 있다.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현주소

2016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 약 5,000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다. 북미에 있는 한인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필자는 이들이 북미라는 대륙위에 떠있는 인공섬(island)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L.A.,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Atlanta, Seattle, Toronto, Vancouver 등에 존재하는 한인들의 대형 섬들과 그 외의 북미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수없이 많은 한인들의 소형 섬들을 볼 때, 이들이 북미라는 대륙과 다리로 연결되어 공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 사회나 주류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이와 같은 한인들과 한인교회들의 섬화(化) (island-ization)현상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언어 (English)의 한계와 문화 (American culture)의 이질성을 들 수 있지만, '단일민족' 과 단일문화라는 배경에서 오는 한인들의 타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인 교회의 섬화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인 교계는 이러한 섬화 현상이 고착화되어지는 (fossilizing) 과정속에서 계속 팽창하기도 했고 분열도 일어났다.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섬화현상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도하시던 연합된 교회(Universal Church)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여주시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협조하는 그림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외형적인 차이점(피부색, 언어, 민족, 출신지역 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통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믿음)을 바라볼 때, 교회의 섬화가 아닌 교회의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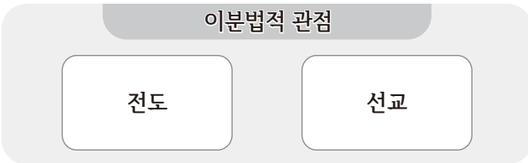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주한인교회가 한국교회 (Church in Korea)에도 속하지 않고 미국교회 (Church in America)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과 미국 사이인 태평양 어디쯤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선교에 있어서는, 미주한인교회가소수민족 교회들의 모범이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필자는 실제적으로 한인교회가 American Church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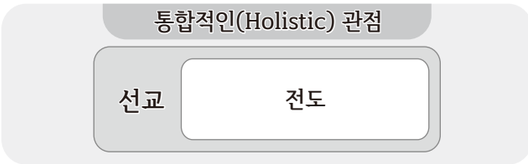
북미한인교회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삼으라!" 라는 주님의 대위임령은 충실히 지켰으나, 주님이 주신 대명령의 두번 째 부분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미약하게 실천했던 것 같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북미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지금까지 "가라 (Go!)" 아니면 "보내라 (Send!)" 라는 이분법적 (dichotomistic) 설교와 가르침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here) 같은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는 멀리 해외(over there)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해외로 떠나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따라서 해외가 아닌 현지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후방'팀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따라서, 성도들은 먼곳에있는 '선교사'의 사명은 알지만,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선교사적' 삶의 요구와,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은 잘 모르고 살아온 듯 하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전도는 선교이지만, 모든 선교(학교, 병원, 고아원 운영 등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가 전도는 아니다.



북미 한인교회의 영어사역 (English Ministry)

일반적으로 한인디아스포라교회 내에 영어사역부서나 영어 회중에는 한국인이 아니고, 아시안도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다민족/다문화적인 경우가 많다. 북미 한인교회의 영어사역/다문화/다민족 사역은 기본적으로, 의존형(dependent), 상호보완형(interdependent), 독립형(independen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의존형 영어사역은 한인교회의 한 부서로 존재하며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와 간섭을 받는다. 둘째, 상호보완형의 경우, 교회 내의 한국어권 사역부와 영어권 사역부가 (거의) 동등한 위치로 존재하며,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예를 들어, 영어권에서는 한국어권 사역에 교육부에서 필요로 영어권 주일학교교사를 공급해 주는 것은 필수다. 한국어권(이민 1세 성도들)에서 영어권 사역의 독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로, 독립형은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한국어권 사역부, 혹은 한국교회와 연관이 없는 영어사역이다. 이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영어권예배의 사역자가 그 (독립)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위에서 본 것 처럼, 하나의 소수민족 중심으로, 혹은 디아스포라 그룹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다민족 사역의 유형이 단순하게 세 유형으로만 구분되지만, 미국 주류 교계 가운데 나타나는 다문화/다민족 사역들은 각 상황의 복잡한 특징을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지어진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미 다민족/다문화사역에서는 십여 개의 사용모델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incubation, cell group, house church 등,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모델과 유형들이 있다.

< 다민족/다문화 사역의 모델들 >

1. 셋방살이 모델 (Host Church Model):

한 소수민족 그룹이 다른민족교회에 단순히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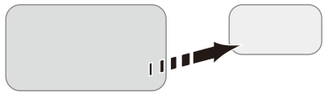
2. 한 부서 모델 (Department Model):

주류계 교회 내에 한 개의 소수민족 그룹이 하나의 장년부서로, 혹은 주일학교 학급의 형태로속해 있는 경우

3. 다중교회 모델 (Multi-Congregational Model):

여러 개의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한 주류계 교회에 소속된 멤버이면서, 동시에 각 민족별 회중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4.교회개척 모델 (Outrea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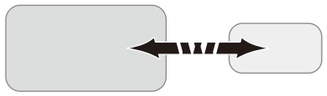


주류계 교회가 계획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단일 소수민족교회 혹은 다민족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경우

5. 동역 모델 (Partnership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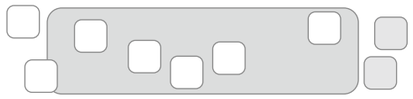
여러 개의 다른 민족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소수민족교회, 혹은 다민족교회를 시작하는 경우.

6. 입양 모델 (Adop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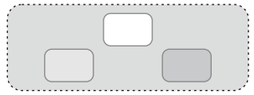
이미 존재하는 있는 소수민족그룹을 격려하며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세우기 위해 한 주류계 교회가 그 그룹을 '입양'하는 경우.

7. 동화 모델(Assimilation Model):



소수민족 신자들 모두가 주류 민족 교회에 흡수, 동화되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과 형식에 자신들을 맞춰나가는 경우.

8. 다교회 모델(Multi-Chu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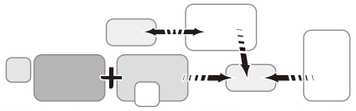


여러 개의 다른 소수민족이 한 주류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지만, 각 민족 그룹이 독립된 모임의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

9. 다민족 모델 (Multi-Ethnic Model):

한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 소수 민족 그룹의 사람들이고, 다민족예배의 형태로 모이는 경우.

10. 복합('짬뽕') 모델 (Blended Model):



한 주류계 교회가 다양한 모델을 통하여 소수민족선교를 실행하는 경우

11. 통역 모델 (Interpretation Model):

교회에서 소수민족계 사람들을 위해 예배와 성경공부 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가주에 있는 은혜한인교회에서는 예배 시에 한국어 설교에 대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통역이 제공된다.

12. 다세대 모델 (Multi-Generational Model):

한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예배에 참석할 때, 다 세대 회중을 위해 두 가지 언어(혹은 통역)로 예배가 진행되는 경우.
필라델피아 안디옥(한인)교회는1세, 2세, 3세 가 같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단일민족(한인) / 다문화 (세대간의 다른 문화) / 다세대(3대가 같이 모인) / 다언어 (영어와 한국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디아스포라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속에서 세상 끝에 있는 민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북미에 와서 정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ethne)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하셨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할 때, 세상 끝으로 가는 것 (Go!)은 선교의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선교에 있어서 지상의 끝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 민족(ethne)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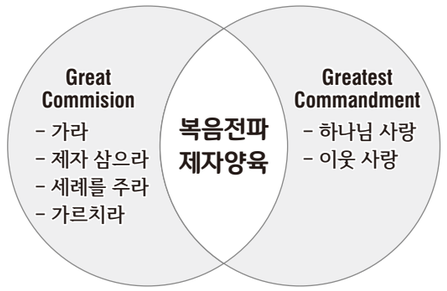
이낙 완(Enoch Wan)은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사역을 3단계로 설명한다.
1. Mission to Diaspora
2. Mission by/through Diaspora
3. Mission beyond Diaspora.

문지방 선교와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선교지임이 틀림이 없다. 북미같은 다민족/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이 선교지이다. 21세기의 북미 교회는 '문지방 선교' (mission on our doorsteps) 라는 현실 안에 존재하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더 이상 북미한인교회가 섬화현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21세기의 선교방향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지역으로(from everone to everywhere)' 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라도, 북미한인 디아스포라교회는 북미지역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백인들을 포함한 주변의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이민 1세들은 비록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타민족들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한인교회)의 자원을 함께 나누는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앞으로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더 많은 관심과 기도 중에 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디아스포라선교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특히 한인 1.5세, 2세 중심의 영어사역(EM)은 미주한인을 넘어서 다민족사역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이런 한인중심의 영어사역에서 다민족사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성서적인 다민족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시에, 현재 정체되어 있는 한인2세중심 EM사역을 위한 돌파구와 활력소를 찾게 될 수도 있다. 다민족교회로의 전환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EM leader들이 다민족/다문화 사역을 위한 의도적인 결단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본다.

마지막으로, 북미한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위임령과 대강령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선교지를 장소로만 보지 말고, 민족그룹의 개념으로 재조명 하여야 한다. 세계 선교지를 지정학적으로만 보는 시각은 20세기의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북미에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주님의 지상 대명령과 대강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파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만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스테판 닐(Stephen Neill)의 말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리하는 말

북미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모습은 북미교회의 외부인으로 외롭게 떠있는 섬의 모습을 연상케한다. 이제는 이에서 벗어나, 미주 내에 있는 타민족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좀 더 대화하고, 연합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성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모습이다. 이민의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지화 현상은 세계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인1.5세, 2세 중심의 영어사역은 사역자들의 의도적인 방향전환과 실행을 통해 다민족/다문화사역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북미 한인디아스포라교회와 한인 선교단체들은 더 많은 주류교회와 단체들과의 연결망을 만들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일에 좀 더 힘써야 한다. 북미라는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섬들 같은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은 한인 경계선 (Korean line)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민족/다문화사역에 관심을 갖고 북미의 (재)복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만일, 21세기에도 북미의 '한국섬들'로 남아있게 된다면,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미래에도 계속 고립되면서, 점차적으로 퇴보되고, 북미 교계와 세계 선교속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축소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짧은 글을 마친다.

Major Trends, Models, and Issues of Multi-Ethnic / Multi-Cultural Ministries and Church Movements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ism in the USA

Chandler H. Im, Ph.D.

" Immigrants are not de-Christianizing America,
but are de-Europeanizing American Christianity. "
R. Stephen Warner (2006) Prof. of Sociology at Univ. of Illinois at Chicago

Introduction

Christian futurologist Tom Sine in his book The **New Conspirators** (IVP, 2008) traces out four new significant or major movements within the Church, including evangelical circles, in the present—in a post-Christendom thought context.

- The *emerging* church movement: crossing theological boundaries and heavy on contextualization; critical of institutionalized church structure and worship; now getting smaller, less important, and perhaps dying out
- The *missional* church movement: seeing the Church as God's tool for mission, rather than mission as a tool for the Church
- The *monastic* movement: small groups of Christians living together, sharing resources, and serving the local community
- The *mosaic* movement: multi-ethnic/ multi-cultural worship, reconciliation, unity, and collaboration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last (mosaic) movement, but also touches upon the emerging and missional church movements to some extent as well due to their overlapping areas of ministry implications.

1. Demographic Shift and Two Major Trends of Multi-Culturalism in the USA in Relation to Multi-Ethnic / Multi-Cultural Ministries and Church Movements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 in the 1910s in the USA, 91.6% of the immigrants came from Europe. During the same period, only 5.8% of the immigrants came from Asia and Latin America. In the 1990s, 77.9% of the immigrants came to the USA from Latin America and Asia. During the same period, those emigrating from Europe declined to 14.9%. In 2014, over 1.3 million foreign-born individuals moved to the USA. The USA admitted 84,995 refugees in the fiscal year ending in September 2016. As of 2016, 13.3% of the U.S. population was foreign-born. In the USA, it is estimated that the non-Anglo population would become the majority by 2043. This trend in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21st century.

In 2000, just 15% of the children were Hispanic and 16% African-American. By 2010, 22% of children were Hispanic and 15% were African-American. Between 2000 and 2010, the number of Hispanic children rose 52.35%, Asian kids increased 43.7%, and multi-racial (or bi-cultural) children increased 56.6%. Therefore, mainstream leaders are paying attention to ethnic (non-Anglo) leaders, especially next-generation English-speaking leaders.

In the backdrop of multi-cultural diversity caused by rapid non-Anglo population growth, I see polarization of views (양극화현상) on multi-cultural diversity in American culture and also within the Church in the USA, a reality which carries missiological implications for multi-ethnic ("ME" hereinafter) and multi-cultural ("MC" hereinafter) ministries and movements.

First, the general public seems to have embraced multi-cultural diversity as a reality, e.g., at schools and work places, etc., especially by liberal members of society and younger generations. Examples: youth—most color-blind generation in US history; more severe punishments for hate crimes; anti-discrimination laws at work; no bullying allowed at schools….

Thus, there's a general consensus among mainstream Christian leaders for the important place of ME/MC ministries in the Church in the USA.

On the other hand, I also see some member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churches) in the Body of Christ in the USA who have hardened their hearts and have become more "conservative" and even radical (contrary to biblical teachings) when it comes to taking on immigration issues and dealing with immigrants, refugees, and diaspora people groups. Some examples: anti-immigration or very strict immigration laws recently passed; more difficult to get U.S. citizenship (1985: $50 application fee -> 2016: $765). Some Anglo-dominant miss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eschew or stay out of the ME-MC movements in the USA, and focus their efforts only on reaching out to their own (i.e., Anglos).

It appears that the latter position is of the slightly majority view among evangelicals in the USA. A 2010 Pew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survey showed that 39% of evangelicals and 45% of Catholics support immigration reforms, which include tightening U.S. borders while giving illegal (undocumented) immigrants a path to legal status/citizenship. The issue of immigration has not been a key issue of debate within conservative, evangelical circles in the USA until recently -- unlike other hotly debated and divisive issues such as abortion and gay marriage.

2. Multi-Ethnic (ME), Multi-Cultural (MC) Ministry Models

Definition of ME/MC: To be called a ME/MC church or ministry, ME/MC movement leaders such as Mark DeYmaz, Ken Baker, D.J. Chuang, Rodney Woo, et al. claim that the make-up of a congregation needs to have at least 20% "others." For instance, an Anglo-dominant (or Korean American-dominant) church/ministry should have at least 20% non-Anglo (or non-Korean) to be called ME/MC. Yet, 80/20 is only an arbitrary number. For instance, 81/19 is not ME/MC, but 80/20 is?

A. Korean-American Church Models: Generally, an English-language ministry or congregation at a Korean Diaspora church may include non-Korean, non-Asian members, thereby making it ME/ MC. In Korean diaspora churches, the general practice is ME/MC ministries (a.k.a. EMs) are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1) dependent, 2) interdependent, and 3) independent models. Dependent models refer to English-language ministries under the leadership of KM. The dependent model relies on KM for finances, logistical needs; it often lacks decision-making power or "veto" power over KM's decisions. The interdependent model, often viewed by many 1st-generation Korean pastors as "ideal," is a model that seeks "win-win" for both KM and EM. Oftentimes, both ministries/congregations are expected to help each other out in terms of finances, teacher supply, and other evolving needs. The third and final type is independent English-language churches. In these cases, EMs or ME/MC Korean American-dominant churches are independent of KM's control, supervision, and support. Here, the EM pastor functions as senior pastor of such a church. Legally and financially, it's an independent entity. Of course, there are modified versions of the three models, which may vary slightly or greatly from church situation to church situation.

B. In mainstream, non-Korean, non-diaspora settings, however, the three models/categories listed above are too simplistic and not comprehensive enough to delineate complexities and intricacies of various ME/MC ministries. The diagrams and short explanations below demonstrate how complex and diverse these ME/MC models can turn out to be. Caveat: Even these models below do not include all the ME/MC models that exist out there.

Multi-Ethnic Church/Ministry Models

1. Host Church Model

This could be a re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st church and the ethnic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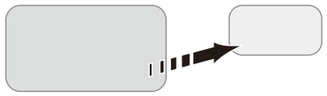
2. The Department Church Model

The ethnic group is an adult community or Sunday School class within the church.

3. The Multi-Congregational Model

Ethnic groups form different congregations where all are members of the same church.

4. The Outrea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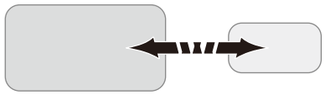


The parent church intentionally plants an ethnic or multi-ethnic church elsewhere.

5. The Partnership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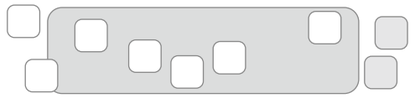
Churches with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join to plant another ethnic or multi-ethnic church.

6. The Adop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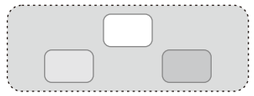
A church adopts an existing ethnic fellowship for mutual encouragement and ministry.

7. The Assimilation Model



All ethnic believers are absorbed into the host church and adjust to its program and style.

8. The Multi-Chu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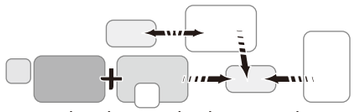


Several ethnic fellowships use the same church building, but they are involved in their own governance.

9. The Multi-Ethnic Model

The church is composed of several ethnic groups which come together for shared services.

10. The Blended Model



A church is involved in more than one model as it works out its plan of ethnic ministry.

There are other model variations… such as Incubation, Translation, Cell Group, House Churches, Multi-Generational.

* The above diagrams and descriptions were compiled from a variety of sources by David Ripley, former EAN Research Coordinator, Billy Graham Center at Wheaton College, and slightly modified by me.

3. Multi-Ethnic, Multi-Cultural Ministries and Church Movements

A. Multi-Ethnic, Multi-Cultural Ministries' Status: It is not uncommon to see ME/MC ministries and churches across the USA. Based upon my observations, in non-Korean, non-diaspora contexts, these ME/MC ministries are initiated and/or driven by mega-churches (1,000 members or more), or by at least medium-sized (300-500 members) churches. It is not easy to see ME/MC ministries in small churches or diaspora churches in the USA, in my observation. Most small churches or diaspora churches (except for big and mega diaspora churches) may be categorized as "homogenous" (i.e., no 80/20 membership) churches.

B. Multi-Ethnic, Multi-Cultural Church Movements' Status: I have personally known several key leaders of the ME/MC church movement for the last several years. Mosaix Global Network (www.mosaix.info), headed by Mark DeYmaz in Arkansas, represents a leading ME/MC movement among ME/MC pastors in North America. Most of the Mosaix network leaders serve as ME/MC church planters and senior pastors of medium or above-medium-sized ME/MC churches.

One major area that I have clashed with these ME/MC leaders head-on is their adamant insistence upon the integrated model (i.e., ME/MC worship in the English language) as the most (or only?) biblical model for church—regardless of the church members' ethnic,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s. They are very critical of and sometimes even harsh toward homogenous churches, and often brand them as "unbiblical." To them, the diversity of ME/MC models, as listed above, is not acknowledged.

C. Ethnic America Network: This network (EAN) that I oversaw as national director from 2008 to 2016 is a coalition of 80-plus evangelical denominations and mission agencies in the USA and Canada, working together in collaboration to promote cross-cultural advancement of the Gospel and intercultural unity in the Body of Christ. Launched in 1999, the network has been on the forefront of the ME/MC mission movement in North America. Most of the network's leaders work as mission leaders of the member denominations or mission agencies.

4. Multi-Ethnic, Multi-Cultural Ministries and Movements in the USA: Key Issues / Concerns

USA-based ME/MC ministries' and movement's three key issues/concerns are portrayed below. Obviously, there are many more issues and concerns that I have not covered here. I would encourage and welcome others to explore further on other issues, which are many but not covered below.

A. Racial Reconciliation: Despite much progress in human rights issues and racial reconciliation, wide gaps still exist between and among diverse people groups in the Body of Christ in the USA. Examples: Racial conflicts between Anglos & Native Americans; between Anglos & African Americans; between African Americans & Koreans (L.A. Riots in April 1992; Dallas in Jan. 2012); between African Americans & Latinos (gang fights in big cities like L.A., Chicago, NY, etc.). For ME-MC churches, ministries, and movements, therefore, these issues of racial reconciliation and intercultural unity in the Body of Christ are key issues to wrestle with and promote.

B. "Mission on Our Doorsteps" Reality: The USA has indeed become an important and strategic mission field.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missions were generally regarded as missions from the West to the rest. In a nutshell, mission fields were considered over there (overseas). In the 21st century, however, we live in "mission at our doorsteps" realities, e.g., diaspora people groups living in cities across the USA. Accordingly, the mission mentality of Christian leadership in the USA has been gradually changing with respect to local mission field reality. This is an encouraging development, yet it needs to be expanded further, especially by 1st-generation Korean pastors, who still tend to view mission fields in terms of territorial geography. By God's design and providence, diverse people groups (e.g., atheist, Buddhist, Hindu, and Muslim backgrounds) from nearly all the nations around the globe have become our neighbors, co-workers, and friends. We need to pray for, care for, and share the love and message of Jesus Christ with them.

C. "Missionaries on Our Doorsteps" Reality: As the USA has become a mission field, missionaries around the globe have been arriving to U.S. shores and cities as well. For instance, as of January 2011, according to Korean World Mission Association's data, 1,468 Korean missionaries were now in the USA. Many of them are pursuing advanced degrees at seminaries and Christian institutions across the USA. At the same time, many are serving at various ministries as church planters (e.g., ME/MC), campus (KCCC, UBF, InterVarsity, etc.), homeless, prison, and Native mission workers. In the backdrop of mission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now present and serving with U.S. nationals in the USA, the issue of reciprocal or mutual mission, in the specific context of ME/MC movements, is an interesting and important phenomenon to keep an eye on.

D. Issue of Power and Control: In April 2011, I had a 5-minute face-to-face conversation with Andrew Walls, a world-renowned mission historian, when he was visiting the Wheaton College campus. He told me that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n the 2,000-year-old Christian history would be: "Who's the boss?" He did not elaborate on his statement. But this is my interpretation: Who makes key decisions in your denomination, in your organization, in your church? Who makes decisions on financial criteria? Who makes decisions on mission policies at your church, at your mission agency? What kind of procedures do you have in place? How many ar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o on and so forth.

Example 1: In ME/MC minis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host church and hosted church can be a sensitive issue. The key issue in such a case is not necessarily whether a relationship/partnership exists or not. But the more important and fundamental question would be: what kind of relationship/partnership do they have together? Is the relationship/partnership like that of a building owner (landlord) and tenant (renter)? Or are they like equal partners —well, more or less— in God's Church and Kingdom?

Example 2: In ME/MC ministries, does key leadership (i.e., pastors and elders/leaders) also represent the MC/ME nature and make-up of the congregation? For instance, I have seen numerous Korean-dominant EMs whose leadership are comprised of only Korean Americans.

Three Case Studies of Multi-Ethnic / Multi-Cultural Ministries in the USA that Have Extension Arms to Global Missions

Case study 1: An international student (Muslim background) from China becomes a Christ-follower through a campus ministry here in the USA. The person goes back China after graduation. He does not need to worry about his visa status, language acquisition or cultural adaptation. He becomes an effective missionary in residency in the incarnational sense.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diaspora mission strategy here in the USA and also around the world, esp. for Muslim countries and creative-access countries.

Case study 2: There's a 150-year-old African American church (Main Baptist Church) in Aurora, Illinois. They have "African Connection Ministry," in which African-American church members actively reach out to African immigrants and refugees (like those from Ethiopia, Liberia, Nigeria, etc.) in their local neighborhoods. They also send short-term mission teams to the Continent of Africa. It's truly glocal (global & local) in nature.

Case study 3: Naperville Calvary Chapel in IL, a ME/MC mega-church, sends out short-term mission teams to places where their church members have local connections to. For example, they regularly go to Cambodia on short-term missions with Cambodian members of the church as their leaders, translators, and local door openers. Before the trip, the Cambodian members train non-Cambodians for the Cambodian language, customs, protocols (what to do, what not to do, what not to say, what not to wear in public, etc.). So in this case, the global mission has personal and local links to it—and the Cambodian members do the follow-ups after the mission trip.

Final Words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mandment will not be fulfilled without doing cross-cultural missions right here on our doorsteps in the USA (and also elsewhere, like South Korea). We are part of the Global Church. The Global Church is not the church that's "out there." All of us in the USA are part of the Global Church. We need one another. We have to do more than just tolerating each other. We have to work together: non-immigrants and immigrants; Koreans and non-Koreans; Anglos and non-Anglos, etc. Our unity—despite differences in our skin color and ethnic backgrounds—is a testament to the unbelieving world that we are indeed one, one in Christ.

The dividing line that used to exist between home missions and overseas missions is getting fuzzier and fuzzier.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had their national annual gathering in Phoenix in June 2011. One of the key agenda items on their table was: How can the SBC's International Mission Board and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work more closely and more effectively together for the sake of evangelizing the unreached, especially those diaspora people groups here in the USA? **The theme for their annual convention was: A Great Commission People with a Great Commandment Heart. It's very biblical, indeed.**

임찬혁 선교사 (Chandler H. Im, Ph.D.)

2015년 기준으로, 개신교인 0.4%미만인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세계에서 일본으로 몰려오는 Diaspora 와 소수민족(영주권자, 유학생, 외국근로자, 외국출생 배우자, 외국계 1.5세-2세등)을 위한 사역에 대한 Vision을 갖고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2016년 9월부터 Tokyo Waseda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의 교목(chaplain)과 국제고문(international advisor)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Japan Bridge Mission의 Executive Director(사무장)로 일본선교와 세계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1980년 미국이민 / Boston Univ. 비교종교학 (B.A.) / 가주 Westminster신학교 (M.Div.) / Fuller신학교 선교학 (Ph.D.) / 북미 서부에서 EM & 다민족사역 9년 / 2008-2016: Former Director of Ethnic America Network & Former Director of Ethnic Ministries, Billy Graham Center at Wheaton College / Co-editor of Global Diasporas & Mission (Regnum, 2014) / SEED-USA 소속 선교사

" 308호 3형제의 88한 이야기 "

퀸장 IT를 책임지는 전산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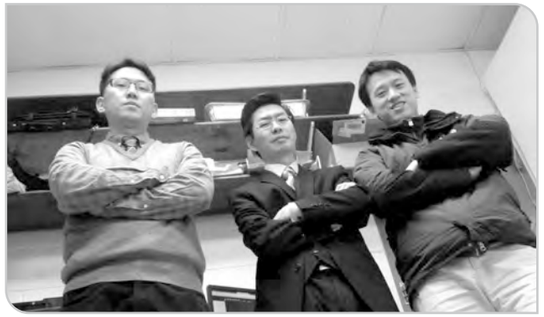
퀸즈장로교회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인터넷 전산위원회(전산부)가 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장애를 해결하고 인터넷을 관리하며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의 컴퓨터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있다면 쉽게 이해된다.

올해 들어 교육관 3층 308호실의 전산부가 더욱 분주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동훈 집사와 Steven Loh를 중심으로 시작된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올해 들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오랜동안 컴퓨터 언어문제로 개편작업이 미루어졌던 교회 홈페이지가 임승룡 집사의 새로운 섬김과 중국어예배부 Steven Loh 집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 작업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의 수정작업은 하루 이틀만에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은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내용구성과 각 메뉴의 인터페이스를 교체하는 중이다. 기존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몇개월간 작업이 지속되면 눈에 띄는 진전을 기대해 봄직하다. Steven Loh 집사가 주도적으로 홈페이지를 수정 업데이트하며, 매주 전산부원들이 모여 논의와 토론을 거쳐 디자인을 변경중이다.

전산부에서 진행중인 또하나의 사역은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설교동영상과 찬양대의 주일찬양, 주보 및 교회소식, 월간지 아가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볼 수 있는 앱 (app)을 제작하는 것이다. 현재 Kapcq.app Ver.1 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3월 10일 전후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첫 버전은 담임목사님의 설교동영상을, 두번째 버전에 찬양대의 찬양동영상을, 세번째 버전에는 교회소식과 아가페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승룡 집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중이다. 안드로이드폰와 애플 아이폰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나 홈페이지 전문업체의 디자이너가 진



행하는 작업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자투리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는만큼 개발속도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팀웍이 없으니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값진 것은 성도들이 손에서 놓지 않고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 퀸즈장로교회를 담아 복음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더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민족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교회에서 중국어예배부의 전산담당자와 회합하여 사역하고 있음도 의미가 크다.

교육관 3층 전산실에서 지하 친교실까지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 장애 발생시 긴급으로 달려가 해결해 주는 전산부는 다양한 헌신과 섬김이 있지만, 정작 전산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는 성도들은 흔치 않다. 또한 전산부는 IT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늘 인력난에 허덕이는 특별 부서이다.

인터넷전산위원회 위원장 강성근 집사는 '관련 지식이 부족해도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어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의미 깊은 부서'임을 강조하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동역을 바란다'고 말한다.

KAPCQ. App 개발

"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맡겨주신 달란트를 드립니다 "

KAPCQ. App 개발자
임승룡 집사

샬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를 다닌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는 두 아이의 아빠(클로이 & 윌리암)이자 집사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순종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게 남은건 고작 주일 하루만의 크리스찬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고 어린 두아이를 양육하느라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하던 저였습니다. 주님의 부름이였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일한지 4년 되었을 때 어느 집사님의 권고로 교회 웹사이트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어린 두아이를 돌보는 일도 버거웠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세상과 항상 타협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몸은 고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017년도에 두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native app을 통해(iOS & Android) 교회 성도분들께서 쉽게 말씀 동영상과 찬양 및 주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관리 프로그램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과 성도분들이 좀더 쉽게 말씀과 찬양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유영 전도사의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이정훈 vs 이정훈

'장'이 바뀌니 '주방'이 달라졌어요

- 주방 이정훈 집사 인터뷰 -

제가 퀸장에 등록하기 전에, 우리 주방의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습니다. 주방 권사님께서 국을 끓이시다가 식사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물타라" 한마디에 그 날 국맛이 하루에도 몇번씩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방의 주인은 몇번 바뀌었고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의 입맛을 깔끔하고, 입에 감칠 맛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엔 밥에 국 말아서 김치나 깍뚜기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많은 양의 국을 끓이는데도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국을 끓여 내시는 주인공 이정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S: 안녕하세요 집사님. 먼저 가족소개와 저희 교회에 언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L: 네 저는 자녀는 없고 아내는 차명희 성도입니다. 저는 2011년 5월에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일한지는 2014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 2년 9개월째입니다.

S: 요리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L: 저의 대학 전공은 사진 전공이었습니다. 졸업하고 2, 3년간 사진으로 생활수단을 삼았었습니다. 1990년경에, 스페인에서 사진에 관련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우연찮게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한것이 요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한식당이었죠. 다행히 요리 잘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식당을 하면서 일을 배우려고 다른 식당가서 일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서울의 유명한 식당과 큰 호텔, 뉴욕의 바쁜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사진은 그 이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S: 퀸장에 주방장으로 오셔서 어떠셨는지...

L: 우리교회 주방에 와서 많이 바빴습니다. 요리보다는 주방 관리에 비중이 더 큽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주방이기 때문에 주방 관리자의 비중이 더 큽니다.

S: 주일 식사는 물론이고, 화요일 새가족 환영회, 평일 교역자 식사를 보면 맛의 평가가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 저는 성격상 대충 대충 못합니다. 많이 까다롭다는 소리도 듣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있죠. 퀸장에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교인이 먹을 국을 끓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문제 없죠.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바닥을 보이지 않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S: 저는 집사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데요... 하하하

L: 드시는 분이 모를 수 있는데요, 음식은 연관성이 있어요. 가지 하나 가지고도 무치고, 튀기고, 볶고... 요리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리 가짓수가 많은거죠. 아까드신 치킨도 소스를 달리해서 먹으면 색달라요. 요리에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 레시피를 변형시키는 것은 요리사의 입맛이에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요리해야 맛있어요. 그리고 생선찌게를 하면 그 맛을 알아야 생선찌게 맛을 내요.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죠. 어려서부터 먹었던 맛이 요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S: 특별히 자신 있으신 요리가 있나요?

L: 저는 차가운 냉면, 면요리를 오래 했고 자신 있어요. 교회에서도 메밀국수도 몇번 했었는데, 자신 있는게 한식이죠.

S: 냉면은 면도 뽑으시고, 육수도 내시고 다하시는 건가요?

L: 그럼요. 면을 위한 반죽부터...., 큰 식당 냉면 만드는 사람은 무거운게 많기 때문에 남자가 다합니다. 육수 끓이고, 동치미 무 박스로 썰고, 동치미 숙성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냉면이 시원하고 맛있지만, 힘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음식이에요.

S: 언제 냉면 맛 볼 기회를 주세요. 집사님만의 레시피 알려 주실 만한게 있나요? 생선 조림이라든지, 집사님만의 소스가 있으세요?

L: 한가지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은 거의 비슷해요. 조림을 할 때,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등이 들어가는데, 모를 때는 일단 1:1:1:1로 해요. 설탕은 많이 넣으면 안되지만, 맛이 안나고 자신이 없을 때 이 비율로 하면 일단 간을 잡을 수 있어요. 먹어보면 뭐가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알게 되고 더 맛있는 비율을 잡을 수가 있어요.

S: 제가 알고 싶은거는요, 특별히 요리 초보자들, 뉴욕에는 유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생선조림이라도 레시피를 알려 주십사 하는거죠.

S: 자 여기서 이정훈 주방장님의 고등어 조림 레시피 들어갑니다.

L: 손질해서 토막낸 고등어 세마리, 무우 썰은 것 적당히, 양파, 파등 넣고 싶은 야채, 멸치육수 적당량, 간장 3, 고추장 2, 고춧가루 1, 설탕 1/2, 마늘, 생강 딱 이거에요. 양념을 많이 안써요. 참기름도 안넣어요. 이렇게 음식하면 비율이 복잡하지 않아서 빨리해요. 무를 깔고 멸치 육수를 조금 넣고 양념 넣고 무우에서 나오는 물을 감안해서 육수를 자작하게 채워요. 그리고 20분 끓이면 맛있는 생선조림이 되요.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S: 요런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L: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방 사용에 대해 체계도 안잡히고 없어지는 것도 많았어요. 제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어요. 사용한 그릇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용한 주방용기를 제자리에 놓지 않으니 주방 안도 지저분해지고, 정작 필요한 때에 제자리에 없으니 어려움이 있지요. 아침에 나와서 정리 안된 주방을 볼 때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방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에서 만든 음식들은 만드신 분들이 처리하시고 정리까지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 오늘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민족 어린이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특별활동위원회이정훈 집사 인터뷰 -

아이들의 특기및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 돌리는 특별활동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이며 안수집사로 여러 중책을 맡아 바쁘게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또 한명의 이정훈 집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S: 안녕하세요 집사님. 먼저 본인 소개와 가족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L: 네. 저는 특별활동위원장, 교회 재직회 서기, 기획위원회 위원, 차량봉사부의 셔틀부에서 봉사하고 있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의 부 캠프장과 한마음 축제에서는 체육대회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 이혜진 집사(유아부 교사), 예슬(중등부 6), 예린(유년부 1) 두 딸이 있습니다.

S: 특별활동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L: 1. AINOS 유스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김미언 집사님이 단장이시고, 세개의 팀이 있는데, AINOS 1은 김현우 선생님이, AINOS 2는 김미언 집사님이, AINOS 3기초반은 오재혁 선생님이 지도하시고 있습니다.

2. G2G 선교합창단은 채현주 권사님이 지도하시고,

3. 하랑예찬 바디워십팀도 세개 팀이 있습니다. 1기, 2기는 송은주 집사님이 지도하시고, 3기는 강계인 집사님이 지도합니다.

4. AWANA는 차평화 전도사님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행사로는, 6월에 어린이 부흥집회에 하랑예찬과 G2G가 출연하고, 6월말에 AINOS 여름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8월에는 특별활동위원회 헌신예배가 있고, Music Camp를 계획중인데 내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Fall Family Festival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S: 특별활동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L: 학생 각자의 특기및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outreach(봉사활동)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로원방문, 할렘선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S: 아이들의 특별활동 중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면...

L: 감사한일이 많죠. 목사님께서 다민족 선교에 관한 비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다민족 선교의 비전이 우리 특별활동위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중국동포 아이들이 조인함으로 다양한 분포가 되어서 폭넓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동포 아이들은 G2G에 많이 조인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부모님들이 원하는게 이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친구 사귀기 힘들었는데 특별활동을 통해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예가 많았어요.

S: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AINOS 아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했어요.

L: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었구요. 실력향상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 성탄절 칸타타와 음악회에도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S: 특별활동부에서 교회나 학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L: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특별활동 또한 영성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기도 후원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왜 악기를 연주하고 율동하고 찬양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S: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활동위원회의 발전과 그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뿐 아니라 영성도 발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민족 예배와 차세대 교육이 함께 중국어로 섬기는 주일학교 일곱 교사

정민영 집사

지난 2015년 1월 4일 중국예배가 설립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예배는 등록교인이 8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중국예배가 빠른 시일내에 급성장하면서 새가족 공부, 장년성경공부, 전도폭발 훈련등 장년 성도들을 위한 양육과 훈련 과정들이 신속히 만들어졌으며 지난 해에는 해외선교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선교사역도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서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한국예배의 교육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중국예배의 급성장과 동시에 늘어나는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가 안되는 중국학생들을 위해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들을 영입하여 한국말과 영어로 드려지는 교육부예배를 중국어로 통역하며 학생들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적게는 6-8 명의 중국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유년부와 초등부의 경우는 23- 25명의 중국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학생들이 모두 주일성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매 주일 각 부서별로 3명에서 1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통역을 해주는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학생들이고 매 주일 출석률의 편차가 크지만 교육부서의 관심과 사랑으로 중국예배의 차세대 교육이 방향을 잡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유치부에서는 중국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역을 통해서 듣는 설교말씀과 한국어가 대부분인 찬양시간, 기도시간이지만 사뭇 진지하게 아이들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앞으로 중국예배 2세대들을 통해 이루어질 더 큰 부흥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중국예배 첸위지 전도사님과 교육부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예배에서는 차세대를 위한 교육부를 세우는 것이 큰 과제로 다가온 현실에 교육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을 요청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중국학생들의 Database와 연령별 교육부 졸업 Cycle, 교육자료등 차세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7명의 교사들의 역할이 크며 이들은 대부분 교육부를 섬긴지 오래되지 않은 신입교사와 청년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교육부에서 잘 훈련받아 차후 중국예배의 차세대 교육에 리더들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민족 예배와 차세대 교육의 비젼이 중국예배와 또한 러시아 예배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일곱 교사

영아부 **김미선**

유아부 **이애령**

유아부 **황현희**

유치부 **허 준**

유년부 **이지윤**

초등부 **이 나**

고등부 **TAO JIANG**

고등부 찬양팀 수련회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Bernadsville에서 13명의 고등부 찬양팀과 리더들의 수련회가 있었다. 21일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2박 3일동안 배움과 훈련이 있었다. 배형민 목사와 Jaemie선생이 함께하였다.

수련회의 주제는 '기도'였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2박 3일동안 오전, 점심,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workshop, 기도의 시간, 성경읽기, 글쓰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은혜롭고 기억에 남는 귀한시간이었다.

특 집

" 주님의 사랑이 모든 새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남형욱 집사**

작년, 중국 선교지에서 방문한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중 새가족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가족을 소개하고 전교인이 부르는 찬양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로 우리교회에서 부르는 새가족 환영송과 동일하여 동행한 선교 대원중 새가족위원회 남위홍 자매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중국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새가족 소개를 하게 되었는지' 신기해하며 신이나서 중국어로 된 찬양을 따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장 즐거워 하는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였을 때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일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명이 모든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을 환영해라' 라고 똑같은 지시 하지 않아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사랑안에 새가족을 환영하고 있는것은 그 기쁨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번씩은 새가족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퀸즈장로교회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것이 생소하고 지금은 익숙한 일들도 당시에는 아주 어렵게 해 나가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낯설기만 하던 시간에
따뜻하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오시던 한마디...
정겹게 반갑다고 내민 따뜻한 그 손길...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일 같이 도와 주실려고 동분서주 같이 뛰어 주던 그 발걸음...

이 모든 하나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하나씩은 남아 계실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풍성히 느끼고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 합니다.

화요일 새가족학교 청년모임

새가족 청년부 모임은 매주 새가족학교 공부가 끝난후 새가족부 청년 담당들과 교회에 처음나온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알아가면서 교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임입니다

교회가 낯선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교회를 즐겁게 알아가고 사랑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등을 7주간 외우도록 도와 드리며 작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청년 여러분 많이 조인 해 주세요!

사랑을 담은 환영의 전달자 새가족 방송팀

새가족부에서는 주일날 4번의 각 예배마다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 각 예배중에 새가족 방송팀에서는 실시간 소개를 위해, 본당에서는 꽃다발을 전달하기위해 섬기는 이들이 있다. 온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가족을 사랑으로 환영한다

새가족위원회 방송팀

1부 남형욱 / 2부 김지선 / 3부 윤혜진 / 4부 최지혜

새가족 위원회의 역할과 2017년 계획

새가족위원회는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 해주는 여행 가이드와 같은 역활을 하는 부서입니다.

처음 우리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등록을 도와주고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7주간의 새가족학교를 통해 교회안내와 더불어 담임목사님의 '예수의 유일성' 강의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두세 차례 새가족학교 수료식을 통해 전교인들이 새가족을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료식 이후에는 교회 여러부서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도 새가족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새가족위원회는 항상 새로워지고 더 발전하는 부서가 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하는 가운데 있으며 그가운데 어린 자녀들과 화요일에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 주일 영유아반을 새롭게 운영하여 벌써 3기를 졸업시켰습니다.

새가족학교 수료예배도 화요일에서 주일로 옮겨 교인모두가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월에 시작된 중국어예배부의 새가족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새가족을 위한 교회 안내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킹은 어디를 이용할수 있는지, 식권은 어디서 사는지, 십일조 봉투는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주일학교와 부속학교는 어떻게 입학 할 수 있는지등 새가족이라면 궁금하실 모든 사항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하여 교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가족들이 우리교회에 오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1. 등록

로비 접수 – 예배실 안내 – 예배중 환영순서(환영송 및 환영 꽃다발) –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터뷰 – 목사님 축복 기도 – 기념촬영 – 교구장 소개 선교위원회 및 지역장 지도원 소개 – 선물 증정 – 식사안내

2. 새가족학교

매주 화요일 7시30분 / 친교실

시 간	내 용	담 당
7시 30분 – 7시 50분	교회안내	새가족위원장
7시 50분 – 8시 25분	저녁식사	여 선교회
8시 25분 – 8시 30분	찬양곡 배우기	찬양팀
8시 30분 – 9시 10분	예수의 유일성	담임목사님
9시 10분 – 9시 25분	청년부 모임	새가족 청년 담당
귀가		남 선교회

3. 새가족학교 수료예배

주일 오후 예배
- 새가족위원들과 새가족으로 구성된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시간
- 새가족 대표의 간증
- 목사님 말씀
- 합창단의 축하 찬양
- 수료장 전달
- 전교인들의 축복 순서 (야곱의 축복 및 축하 꽃다발 전달)
- 여 선교회에서 준비한 만찬

4. 새가족학교 수업 내용

주	성경공부	교회안내
1주차	서론	THE MOST 영화 (요한복음 3:16)
2주차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시설안내
3주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찬양위원회안내
4주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선교위원회안내
5주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육위원회안내
6주차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신 예수그리스도	주보를 통한 예배순서 및 각종 모임등 교회전반에 대한 안내
7주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구 안내

수료자 간증

" 2016년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 "

박종범 성도 (청년선교부 114기 새가족학교 수료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가족 학교를 수료한 청년선교부의 박종범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와 누나의 추천으로 퀸즈장로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등록한지는 3년이 지났지만, 예배만 참석하고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새가족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퀸즈장로교회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들으면서 복음이 새롭게 다가오고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시간시간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유일한 메시지임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더욱 체험할 수 있었고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같이 맞아주고 캐어해 주신 교역자님들과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진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사람에게 실망하여 주일에 있는 학교 수업 핑계로 맡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미국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생활을 했던 저의 돌 같았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섬김의 즐거움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그저 머물러있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했던 저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며 거룩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했었던 제가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께선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일 스케줄 때문에 새가족공부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퀸즈장로교회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곧 돌아오는 6월에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퀸즈장로교회 경찬팀에서 드럼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며 찬양에 대한 저의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을 들거나 겉으로 지나치게 표현하며 찬양하는 모습에 가식이 보이고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퀸즈장로교회로 온 후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찬양하는 기쁨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런 찬양의 모습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분들의 경배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저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그리고 좋은 청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내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올 한해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 114기 새가족 수료예배

~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

2월 12일 오후 4시 예배는 제 114기 새가족 수료예배로 드렸다. 새가족 위원 및 새가족으로 구성된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과 더불어 온성도들이 한목소리로 찬양하며 경찬팀에서 드럼으로 봉사하며 퀸장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을 감사하는 새가족 박종범 청년의 간증시간이 있었다.

이날 김성국 목사님께서 새가족 수료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열매를 바라시며"란 제목이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좋은나무가 좋은열매를 맺을수 있다. 포도나무는 나무로 쓸수 없는 나무이지만, 열매가 있을 때 아름답고, 또한 축복을 볼수있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앞에, 우리는 회개와 성령과 사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글로리아싱어즈의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료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7주간의 공부를 마치고 새가족학교 수료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불러주는 "야곱의 축복"을 잊을수가 없을것이다. ~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에게 새가족부란...

박대희 권사

우리 교회안에 많은 부서 다 소중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부서가 발전하고 등록하는 모든 새가족이 열매로 담장을 넘어 큰 부흥이 있길 기대합니다. 오랜시간이 흘러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사랑하는 새가족부에 부족한 저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지선 집사

저는 2부 예배에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새가족이 왔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새가족부에는 퀸즈장로교회에 새가족이 된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도완 청년

제가 새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찬양입니다. 새가족이 오셔서 7주동안 공부를 하실 때 찬양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새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것 입니다.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쁜 마음과 표정으로 함께 할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남위홍 청년

새가족 맞이 및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 시작점이 우리 새가족부가 될 때가 가장 보람있고 은혜로운 순간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가족부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서가 될수 있도록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수진 집사

새가족부를 섬김으로 받는 은혜들 중에서 하나는 전혀 예배도 안드릴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끌려 와서 잘 정착하여 변화 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하나 하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인 새가족부에서 함께 기쁨으로 섬길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황현희 청년

현재 새가족부에서 섬긴 지 몇 주 밖에 안되지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새신자부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랑 시간 같이 보낼 때도 너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였습니다. 아이들이랑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집사

처음 새가족부 봉사는 장로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지만 흔쾌히 결정할수 있었던건 감사함이다. 가장 어렵고 힘들때 사랑으로 베풀어준 곳이 새가족부였으며 뿌리가 깊히 박힐 수 있도록 7주간의 사랑이라는 밑거름은 지금까지 지탱할수있는 평안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 114기 새가족 졸업을 준비하면서 나의 졸업식날이 떠오른다. 그날도 그어떤 졸업식날 보다 큰 감동이었다.

이윤수 집사

비록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지는 않지만, 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새가족부원으로써 제 마음의 있는 기도제목 또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교인들의 마음과 감정이 저의 미숙한 말투와 행동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저의 기도제목이 두고두고 퀸즈장로교회 새가족부에서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윤혜진 청년

저는 새가족부에서 3부예배 새가족방송, 4부예배 등록 안내, 화요 새가족 공부 청년모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새가족들에게 처음 다가가는 어색한 시간이고, 그시간이 지나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모습을보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건 청년

저는 화요일 새가족교육 봉사와 주일 3,4부 예배 등록접수, 인터뷰준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가족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집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조언은 제 영적 믿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가족봉사의 제일 큰 동력은 새가족부의 사랑을 통해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가족부 화이팅!

최지혜 청년

저는 4부 예배의 새가족 안내 방송과 화요일 새가족 교육 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게 돕는 모든 손길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단비TV 방송사역을 하면서, 퇴근 후와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며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가족부 파이팅!

박경란 : 예수의 향기와 사랑을 가장 먼저 전할수 있는 곳
남형욱 : 새가족부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는곳
이영희 : 새가족부는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는 곳
윤혜진 : 새가족부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열심으로 노력하게 하는곳
김미권 : 새가족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곳
최지혜 :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이윤수 : 섬김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은혜로운 삶의 전환점
김경미 : 새가족부는 내게 기쁨이요 행복이며 섬김이다
김수진 : 새가족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하여 섬기게 하는 곳이다.
박대희 : 새가족 부는 나에게 마음의 고향이며, 설레임을 안겨 주는 곳.

다민족 새가족 학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중국어예배부의 '닮은꼴' 새가족부

중국어예배부 새가족부 **남위홍 자매**

새신자 공부

안녕하세요 새가족위원회의 남위홍입니다.

처음 퀸즈장로교회로 와서 새가족부원들의 따뜻하게 맞아주심에 큰 감동을 받고 새가족학교를 졸업하며 당시 새가족위원회의 김원도 장로님의 권유로 새가족 팀에 들어와서 함께 섬기게 된지 올해로 4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새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저에게 더 의미있고 특별한 일은 2년전에 중국어예배부가 설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받들어 다민족교회를 선언한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드디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중화권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첫걸음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것 같아서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 사람이나 교회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첫 인상은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새가족부의 팀원 한명 한명과 또 그 팀원들이 맡아서 해 나가는 일들은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셔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어예배부의 검증된 시스템을 중국어예배부에도 응용하려는 교회의 방침에 힘입어 중국어예배부 새가족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교회에 정착시키게 하는 새가족부의 모든 시스템은 한국어예배부와 거의 비슷하게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중국어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모임을 갖고있는 모습

현재 중국어예배부의 새가족부는 부장님, 안내2명 선물준비와 포장담당 1명, 문서 및 등록카드 작성 2명 등 모두 여섯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11시에 대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 모두 지하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주일 성경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새가족들의 환영인사가 끝난후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기존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성경공부를 참여했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새가족학교 7주교육과정을 중국어예배부에서도 도입하여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새가족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수업이 지난 1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교재 내용은 한국어예배부와 똑같은 중국어버전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예배부의 새가족들은 주로 가족,친구나 지인의 인도로 교회에 오시고 또 매주 토요일 중국어예배에서 조직하여 나가는 노방전도 중 우리교회를 알게 되어 나오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앞을 지나가다가 중국어로 씌여진 배너를 보거나 교회 웹사이트 그리고 뉴욕 중국커뮤니케이트에서 제일 규모가 큰 <세계일보>에 나가는 우리교회의 안내광고를 보고 오시기도 합니다. 새가족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새가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새신자 공부

매주 늘어나는 새가족 인원에 맞게 정말로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순간도 많습니다. 첸전도사님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설교말씀에 주일날 처음 방문하시는 그 날에 그 자리에서 결신기도하는 새신자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생생한 현장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저희 새가족팀들도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헌신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드릴만한 성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어예배부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낸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 유아부 새가족 성경공부

새가족부 섬김이 **김미권 권사**

할렐루야 !

영,유아부 새가족 성경공부가 4회를 거듭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예배를 드리지 못함은 물론 간혹 교회 등록에도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4차례에 걸친 영,유아부 새가족 성경공부를 함께 참여 해보니, 부모님들의 믿음의 성향을 조금 알아가는 듯합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학교나 결혼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자녀가 태어남으로 스스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찾다보니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교회에 다닌적이 없는데 자녀로 인하여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안고 안절부절 하는 엄마, 우는 아이를 안고 몇 번이고 자리를 떠나야만 하기도 하고, 한 입이라고 더 먹이려고 수저를 들고 분주한 엄마들 가운데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며 받아주시는 김재형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열심으로 질문을 하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답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사뭇 진지하고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본 예배에도 참석하는 몇몇 부모들을 보면 기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차세대의 부모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부 새가족 성경공부를 통하여 세대간의 폭을 좁힐 뿐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한사람 한사람이 교회의 지체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믿고 다시 찾는 퀸장 세무봉사팀, 205호실로 오세요 "

선교와 건축을 위한 봉사, 회계전문가의 최종 리뷰로 빠르고 정확하게

Tax보고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세금보고 하시는 회계사무소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세무 봉사 목적이 뚜렷하고, 새성전 건축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회계 사무실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퀸즈장로교회 내에서도 주일을 이용해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교인들이 모여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윤 집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 역사와 취지: 저희가 하고 있은 세무봉사가 꽤 오래 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시작한지는 벌써 13-4년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무봉사의 목적은 세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써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동안 문서선교, 캄보디아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새성전 건축에도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봉사자들: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최원일 집사님, 배강원 집사님(요한)과 청년 선교부의 심규한, 문단, 노경희, 박새롬, 김아란 그리고 청년 대학부의 설성경입니다.

- 장점: 퀸장에서 세금보고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점은, 시중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는것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고하실수 있고 무엇보다 선교와 건축에 함께 참여하실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1석2조라고 할수있겠지요. 그리고 tax return의 quality면에서도 시중에 비해 더 좋으면 좋았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 걱정없는 경력: 저희 세금보고 봉사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은 현재 이 필드에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젊은 청년들은 회계를 전공하거나 지금 공부중인 학생도 있습니다. 모든 tax return은 철저한 review후에 file이 되고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맡기셔도 됩니다 . 젊은 청년들이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서 봉사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아름답고 또 세금보고의 경험도 쌓을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당부의 말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대상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세무봉사의 목적과 취지를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봉사팀도 그간 여러가지 이유로 이 봉사를 계속하여야하나 하는 고민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꾸준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 봉사의 목적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 여러분께서 관심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정재윤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 회사계로서 성도들의 세금보고를 도와주고 선교나 새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고 있는 세금보고 봉사팀 모든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소유영 전도사]**

*** 새성전 건축을 위한 세무봉사 ***

4월 9일까지 매 주일 오후12시-3시에 205호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후 2주 내에 완성해 드립니다

문의: 정재윤 집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W·E·L·C·O·M·E
2017년 1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허 신 흥 2-F12-1 마르다	최 호 2-F12-1 청년선교회	김 진 구 3-F1-2 디모데	이 선 아 3-F1-2 뵈뵈	김민준, 민서, 은서 3-F1-2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우 세 찬 1-F7-4 모세	김 영 란 1-F7-4 루디아	최 미 자 4-WS-2 루디아
김 화 영 1-BMT-4 뵈뵈	Ana, Christian, Billy, George 초등부, 중등부, 유아부	이 승 철 3-Y-2 청년선교부	김 정 아 3-F10-3 뵈뵈	이 윤 재 3-F10-3 유치부	황 문 영 1-Y-2 청년선교부	박 영 규 4-F1-2 여호수아	박연화, 이우빈 1-F10-3 마르다,유치부
권 인 수 3-FM4-3 여호수아	권 영 애 3-FM4-3 루디아	최 연 화 3-FM4-3 브리스가	강 양 숙 3-LN-2 다비다	김 룡 2-F3-1 베드로	원현선, Daniel 1-F10-3 마르다,유치부	김병곤, 김하린 3-BS2-1 디모데,영아부	김 혜 진 3-BS2-1 에스더
신 동 해 2-Y-2 청년선교부	김 경 훈 3-BS1-1 바울	김 명 복 3-BS1-1 아브라함	김 은 례 3-BS1-1 안나	김민서, 김윤서 3-BS1-1 중등,초등부	전 준 호 1-Y-1 청년선교부		

Chinese Ministry

Skyler Hsiu	何丹	何佳妮	何威航	关静仪	冷慧	刘成	刘艺
孙建群	孙滨	孙玉芝	张梅	张秋娥	李秀洋	杨菲	林英健
梁逍遥	王倩	赵仙艳	郑雄标	郭和香	陆天祥	陆月香	陈伟
陈小娟	黄炜						

■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